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조경학석사학위논문

도시 공원 내 반려견 동반 활동으로 인한
갈등 완화 방안 연구
-보라매공원 실태분석을 토대로-

A Study on Conflict Mitigation Method for User Activity
with Companion Dogs in Urban Parks
-Based on Status Analysis in Boramae Park-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조혜진

도시 공원 내 반려견 동반 활동으로 인한
갈등 완화 방안 연구

-보라매공원 실태 분석을 토대로-

지도교수 성 종 상

이 논문을 조경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0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조 혜 진

조 혜 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12월

위 원 장

孫 鎬 勲

(인)

부 위 원 장

양 행 이

(인)

위 원

성 종 상

(인)

도시 공원 내 반려견 동반 활동으로 인한

갈등 완화 방안 연구

-보라매공원 실태 분석을 토대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조 혜 진

위 논문은 서울대학교 및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학위논문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위원 및 초빙심사위원의 지도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3년 12월

위 원 장 孫 鎭勳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부 위 원 장 양 병 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위 원 이 정 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초빙심사위원 이 청 숙 (가천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도시 공원 내 반려견 동반 활동으로 인한 갈등 완화 방안 연구

-보라매공원 실태 분석을 토대로-

조 혜 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지도교수 : 성 종 상

도시 내 반려견의 증가와 함께 반려견과 함께하는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주로 도시 공원 내에서 반려견 동반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반려견과 공존하기 위한 기반 시설의 부재와 인식의 차이 때문에 이용자들 간의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원에서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공원에서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공원 이용자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공원 내에서 반려견 동반 활동자와 일반이용자 사이의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적, 물리적, 제도적 차원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현재 도시 공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갈등 완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앞서 미디어 분석, 현장 조사 및 Q 방법론을 활용하여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실태 및 인식을 조사하였다.

미디어 분석을 통해 반려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수집하였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에게겐 반려견은 반려자이자 가족이며, 새로운 소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 반려견은 도시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미성숙한 반려견 문화에 대한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보라매 공원의 현장 조사를 통해 반려견 동반 활동이 주로 일어나는 공간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반려견 동반 활동자들은 주로 동선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

며, 넓은 잔디밭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다른 공원 이용자들의 선호 공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반려견 동반 활동자와 일반 이용자 간의 갈등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 조사 결과들을 토대로 Q 진술문을 구성하여 보라매공원 내 반려견 동반 활동자, 일반 공원 이용자, 공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Q 방법론을 진행하였으며, 반려견 동반 활동을 둘러싼 공원 주체들의 인식 유형 5가지를 도출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 갈등의 주된 원인으로 반려견 동반 활동자들의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이 대다수였으며, 반려견 동반 활동을 지원해줄 기반 시설의 부재 역시 문제라고 인식되고 있었다.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해서는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인식에 따라 동의하는 바가 달라졌다. 우호적인 그룹은 자발적 참여에 동의하는 반면 부정적인 그룹은 규제의 강화에 동의하였다. 공원 내 반려견 동반 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공간 조성의 목적에 따라 공간의 위치 및 성격에 대한 의견이 상이했다.

앞서 나온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반려견 활동의 갈등 완화 방안을 프로그램적, 물리적, 제도적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프로그램적 방안은 반려견 동반 활동에 인식과 의식의 변화를 위해 반려견 활동자들이 봉사단체를 조직하여 직접 반려견 활동을 단속하고, 독거노인과 장애인, 어린이들과 반려견을 만나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반려견의 정서적, 사회적 긍정적인 효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서 반려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 기대된다. 물리적 방안은 이용 주체들이 시설과 공간의 분리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용행태 분석을 기반으로 반려견 전용공간 및 반려견 관련 시설물을 제안한다. 제도적 방안은 반려견 전용 시설을 공원 시설의 하나로 포함시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반려견 등록제 실시 후 반려견에 대한 바른 이해 및 책임감 고취를 위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같이 제시된 방안들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첫 번째 단계로, 반려견 동반 활동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두 번째 단계로, 반려견 관련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공원 내 반려견 전용 시설을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반려견 동반 활동의 인식 변화 및 지역 사회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꾀한다. 나아가 도시 내 반려견 동반 활동이 도시에서 긍정적인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며, 유기견의 활용, 반려견 소유자들의 의식 향상 등을 통해 도시 내 반려견 관리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주요어 : 반려견, 도시 공원, 반려견 운동장, 인간과 동물의 유대, Q 방법론
- 학 번 : 2012-22080

■ 목 차

제1장 서론	1
제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제 2절 연구 범위 및 내용	4
1. 연구 범위	4
2. 연구의 방법	6
3. 연구의 구성	9
제2장 이론적 고찰	10
제 1절 여가 활동의 사회 심리적 작용	10
1. 여가 행동 과정 이론	11
2. 여가 만족	12
3. 여가 갈등	13
제 2절 반려견의 사회문화적 여건에 대한 고찰	15
1. ‘개’에 대한 다른 시각	16
2. 반려견 산업의 성장	17
3. 반려견의 정서적 의미	20
제 3절 도시 공원 내 반려견의 출현	21
1. 선행연구 고찰	22
2. 도시 공원 내에서 반려견 동반 활동의 의미	23
3. 반려견 동반 활동의 장으로서 도시 공원	25
제3장 도시공원 내 반려견 동반 활동 실태 및 인식 조사 분석	33
제 1절 도시공원 내 반려견 동반 활동 실태 및 인식 조사 분석 개관	33
제 2절 미디어를 통해 본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사회적 흐름	35
1. ‘애완견’에서 ‘반려견’으로	35
2. 탈 고립화	36
3. ‘개인’에서 ‘공공’으로	37
4. 반려견 문화 성숙도	39

제 3절 보라매 공원 내 반려견 동반 활동	41
1. 대상지 개요 및 주변 현황	41
2. 대상지 이용 현황	43
제 4절 Q 방법론을 활용한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인식	55
1. Q 방법론의 절차	55
2. 각 유형의 특성 분석	61
3.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66
제 5절 소결 : 갈등 해결의 실마리	69
제4장 도시 공원 내 반려견 동반 활동으로 인한 갈등 완화 방안	72
제 1절 프로그램적 방안	72
1. 반려견 위반 행위 단속 및 청소 봉사	72
2. 반려견과 만남의 장	73
제 2절 물리적 방안	75
1. 후보지 1	75
2. 후보지 2	76
3. 후보지 3	77
제 3절 제도적 방안	78
1. 반려견 전용 공간의 공원 시설 법제화	78
2. 반려견 등록 및 올바른 교육과 홍보	79
제 4절 갈등 완화 방안의 도입 단계	80
제5장 결론	82
■ 참고문헌	86
■ Abstract	92

■ 표 목차

[표 2-1] 연도별 유기견 발생 현황	19
[표 3-1] 보라매공원 시설 현황표	42
[표 3-2] 정적행태와 동적행태의 분류	44
[표 3-3] 관리자 인터뷰 정리	55
[표 3-4] 진술문 목록	56
[표 3-5] P 표본	57
[표 3-6] 회전된 성분행렬	59
[표 3-7] 유형 1 진술문 목록	62
[표 3-8] 유형 2 진술문 목록	63
[표 3-9] 유형 3 진술문 목록	64
[표 3-10] 유형 4 진술문 목록	65
[표 3-11] 유형 5 진술문 목록	66
[표 3-12]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이용 주체별 의견 분포	69
[표 3-13] 갈등 해결의 가능성	71
[표 4-1] 공원 내 반려견 프로그램	74
[표 4-2] 시설 설치 및 설계 기준의 예시	79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흐름도	9
[그림 2-1] 여가 행동 과정 이론	11
[그림 2-2] 기대와 경험에 의한 주관적 만족도	13
[그림 2-3] 목표방해모델	14
[그림 2-4]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체 수 변화 추이	18
[그림 2-5]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에 대한 지출	18
[그림 2-6] Harmony Community	27
[그림 2-7] Dog Park in Harmony Community	28
[그림 2-8] Dog Park in Harmony Community	28
[그림 2-9] 도쿄 요요기 공원 내 Dogrun	28
[그림 2-10] 센트럴파크 Dog-friendly areas	29
[그림 2-11] 울산애견운동공원	31
[그림 3-1] 연구의 틀	34
[그림 3-2] 보라매 공원 안내도	41

[그림 3-3] 주변 현황도	43
[그림 3-4] 평일 오전 이용자 행태지도	46
[그림 3-5] 평일 오후 이용자 행태지도	47
[그림 3-6] 평일 저녁 이용자 행태지도	48
[그림 3-7] 주말 오전 이용자 행태지도	49
[그림 3-8] 주말 오후 이용자 행태지도	50
[그림 3-9] 주말 저녁 이용자 행태지도	51
[그림 3-10] 반려견 동반 활동자 행태 분포	52
[그림 3-11] 반려견 동반 활동의 동적 행태	53
[그림 3-12] 반려견 동반 활동의 정적 행태	53
[그림 3-13] 피크닉장(강아지 동산)에서 나타나는 반려견 동반 활동	53
[그림 3-14] Q 카드 진술판	59
[그림 3-15] 유형별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문제 해결 방향	68
[그림 3-16] 유형별 공원 내 반려견 동반 활동을 위한 공간 구성에 대한 의견 ...	68
[그림 4-1] 반려견 봉사단 프로그램 운영도	74
[그림 4-2] 후보지 선정	75
[그림 4-3] 후보지 1 현재 모습	76
[그림 4-4] 후보지 2 현재 모습	77
[그림 4-5] 후보지1, 후보지2의 애견 운동장 예상 이미지	77
[그림 4-6] 후보지 3 현재 모습	78
[그림 4-7]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갈등 완화 방안의 단계적 적용	81

제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일반적으로 여가(餘暇)란 노동시간 외에 남는 시간에 하는 활동이라 볼 수 있다. 여가의 개념은 문화가 다르거나 시대, 계급과 직업에 따라 다르게 정의 될 수 있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어 왔다. 가장 보편적인 여가의 개념은 크게 시간, 활동, 의식의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여가는 ‘생리적 필수 시간과 노동 시간을 제외한 여가 시간에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한 어떤 활동에서 기쁨, 만족감, 나아가서 자아 실현을 하는 것’ 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¹⁾

현대 여가 생활 패턴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를 들면, 경제 발달로 인한 가계 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기술의 발달로 인한 여가 시간이 증가된 점을 들 수 있다. 또, 증대된 여가를 단순히 노는 시간이 아닌 보다 생산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활동으로 인식하게 된 것도 큰 몫을 차지한다.²⁾ 더욱이 주 5일제의 시행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여가의 활동 범위 및 종류가 다양해졌다. 또한 여가가 일상화 되었다. 이로 인해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즐길 수 있는 여가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 같은 추세와 함께 일상적인 여가 공간인 생활권 공영 공공 여가 공간³⁾에서의 여가 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 도시

1) 노용구 『여가학』, 대경북스, 2001 pp62-69

2) 김미향(2006) “현대여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여가 교육의 적용” 한국체육학회지 vol.45(3)

3) 김효정, 『여가공간의 정책적 유형화』(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p.55

여가공간 유형분류를 이용자의 활동 권역별, 공익성 정도별로 구분하여 생활권 공영 공공여가공간, 생활권 민영 공공여가공간, 생활권 상업 여가공간, 광역권 공영 공공여가공간, 광역권 민영 공공여가공간, 광역권 상업 여가공간 6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공원은 국내에서 옥외 여가 활동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 중 하나이다.⁴⁾

도시 공원에는 다양한 여가수요를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시설들이 배치되어 있어 동적 활동 및 정적 활동까지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여가 활동을 즐기는 과정에서 활동 종류, 인식, 경험 등에 따라 이용자 간에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며, 이는 여가 활동을 함에 있어 기대했던 목표들을 방해하는 요인 된다.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하고 여가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위해서 도시 공원 내에서는 공간적, 제도적, 프로그램적 측면의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 속에서 반려견과 함께 여가활동을 즐기려는 수요 또한 높아지면서, 애견 카페, 애견 펜션, 애견 테마파크 등과 같은 반려견과 관련된 광역권 상업 여가 공간들이 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 반려견⁵⁾을 키우는 인구는 1000만을 넘어섰고, 반려견의 수는 440만 두로 추산되고 있으며, 반려견의 수는 2006년 이후 감소했다가 2010년 이후 소폭 상승하고 있다.⁶⁾ 반려견 관련 산업의 규모는 꾸준히 커지고 있고, 1995년 약 5000억 원 규모에서 연평균 11%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3년 현재 그 규모는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⁷⁾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반려견 관련 산업은 양적인 팽창을 넘어서 질적으로 고급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반려견을 가족처럼 여기는 애견문화 때문에 앞으로 위 같은 여가 공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애견인들이 반려견의 건강 혹은 사회성 증진 등을 목적으로 반려견과 함께 여가 시간에 산책을 하는 행태들이 집 근처나 공원 같은 생활권 여가 공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4) 『2012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2), p172

2012년 우리나라 국민이 집 이외에 가장 많이 이용한 개별 여가 공간으로는 1순위 기준으로 ‘식당’ (11.1%), 그 다음은 ‘근린공원’ (9.6%), ‘아파트 내(집주변) 공터’ (8.1%) 순으로 나타남.

5)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여 애완동물(pet)을 사람의 장난감이 아니라는 뜻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란 의미의 반려동물(companion animal)로 개칭하였는데 1983년 10월 27-2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를 주제로 하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었다.(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본 연구에서는 장난감이나 희롱하는 대상인 애완견이라는 용어보다는 생활 및 여가 활동의 동반자라는 의미에서 반려견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6) 농수산검역검사본부(2012), 『201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결과』

7) 전희진, “[펫]개같이 번다? 개로 돈번다.” 『이코노믹리뷰』 (2012년 7월 6일)

이 같은 현황은 불특정다수가 여가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공원에서 직접적으로 안전, 보건에 대한 문제 및 간접적으로는 소음, 냄새 등으로 타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반려견에 대해 여전히 남아 있는 부정적인 시각 등으로 인해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개방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때 반려견 동반자는 타 이용자와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⁸⁾ 이 같은 갈등은 휴식과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두 집단의 여가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현상과 더불어 반려견의 공원 출입에 대해 찬성과 반대 여론이 등장했고, 결국 반려견의 공원 출입에 대한 법규가 만들어졌다.⁹⁾ 이 같은 법규로 인해 반려견의 조건부적 공원 출입이 가능해졌으나, 애견인이 반려견을 동반하여 누릴 수 있는 여가활동은 매우 제한적이게 되었으며, 애견인들의 다양한 여가 활동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반려견 동반 활동을 위한 공간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국내에서는 반려견 동반 활동을 위한 시설 및 제도는 도입 단계이다. 아직까지는 공원 내 반려견을 동반한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은 다른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에 비해 미미한 실정이다.

2. 연구의 목적

도시 공원에서 반려견 동반 활동은 단순한 여가의 의미 이상으로 반려견의 건강과 사회성 등을 위해서 매우 필수적인 활동이며,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이 같은 활동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공원에서 반려견과의 공존은 불가피한 현상이며, 반려견 동반 활동자 및 반려견을 고려한 공간적, 프로그램적, 규제 및 관리 차원의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반려견 동

8) 이서윤(2009), 『현대 한국사회에서 ‘애완동물’의 사회학적 의미』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84 : 원문에는 애완동물로 표기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반려견을 대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반려견으로 수정하여 표기함.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05년 10월 1일부터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제 49조 제 1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제 49조 제 2항)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반 활동에 대해 배려하는 차원에 앞서, 여전히 남아있는 반려견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반려견 동반 활동자의 인식 수준, 그들의 여가 활동 양상에 대한 실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공원에서 반려견 동반자와 일반 이용자 사이에서 원만한 공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려견 동반 여가 활동에 대한 실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평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읽는 것에서 넘어서, 반려견에 대한 사회적인 흐름 속에서 공원 내 반려견 동반 활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로, 공원에서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공원에서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갈등, 긍정적인 영향, 사람들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공원 내에서 반려견 동반 활동자와 반려견, 일반 이용자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확대시키기 위해 공원 내에 적용 할 수 있는 공간적, 프로그램적, 규제 및 관리적 차원의 갈등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 2절 연구 범위 및 내용

1. 연구 범위

(1)내용적 범위

본 연구에서는 다양해지는 여가 활동 중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권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활동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인 도시 공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정된 도시 공원과 그 시설들은 여러 이용자들의 욕구와 활동을 모두 충족시켜주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공존하는 가운데 다양한 갈등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애견인구의 증가에 따른 반려견 산업과 문화의 정착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공원 내 반려견에 대한 문제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공원 내

반려견의 문제는 단순히 공원의 시설이나 공간 구조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반려견 동반 활동자와 일반 이용자 사이의 인식적인 문제, 경험, 공원 공간 구조 및 관리 등의 측면에서 공원 내 반려견 동반 활동을 둘러싼 실태에 집중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반려견 동반 활동자와 일반 공원 이용자, 공원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어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는 생활권 여가 공간 중 옥외 여가 활동 중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생활권 근린 공원을 중점적으로 보았다. 이용자 계층이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공원을 대상으로 하고자, 도시 내 공원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특별시 내 도시 공원을 선정하였다. 서울시 내 반려견 수는 50만 두로 추산된다.¹⁰⁾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보라매공원, 안양천 일대, 한강공원, 서울숲 등 각종 공원 및 주거 인접지역에서 반려견을 동반한 산책이나 운동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소모임, 번개 모임과 같은 친목 도모를 목표로 한 활동들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시에서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보라매 공원과 어린이 대공원에서 찬성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¹¹⁾. 이 같은 조사 결과로 두 공원 모두 반려견 동반 활동과 이를 지원해줄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두 공원 모두 반려견 동반 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특정 장소가 존재하고 있다.

10) 서울특별시 추산 기준. 서울시 동물복지과 전화 인터뷰.

11) 서울시는 2013년 3~4월 1개월간 서울 내 공원 4곳 이용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65.7%가 찬성 의견을 제시했고, 장소별로는 보라매공원 이용자의 82.8%, 어린이대공원 이용자의 72.8%, 서울숲 이용자 66.4%, 북서울 꿈의 숲 4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여란 “‘반려견 놀이터’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생긴다”, 『경향신문』(2013년 5월 13일))

이 같은 조사 결과로 보라매 공원과 어린이 대공원에서 반려견 동반 활동과 이를 지원해 줄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 대공원은 공원 내 동물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물감염의 우려로 반려견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어린이 대공원과는 분리된 시설로 2013년 7월 ‘반려견 놀이터’가 설치되었다. 이 공간은 펜스로 둘러싸여 조성되어 있으며, 관리인의 규제 하에 등록된 반려견과 반려견 동반자만이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 대공원에 접근하기 위한 입구와 분리되어 있어, 일반 공원 이용자와 마주치지 않게 조성되어 있다.

반면, 보라매 공원 내에서는 ‘강아지 동산’이라 불리는 반려견 동반자들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공간이 존재한다. 이 장소는 보라매 공원 내 일부 공간을 자유롭게 점유하는 형태로 나타나, 일반 이용자와 공원 관리자들과 빈번하게 갈등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이 같은 현상을 중심으로 반려견 동반 활동자는 그들을 위한 공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고, 일반 공원 이용자들은 비교적 반려견 동반 활동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해 제도적, 공간적 방침이 없는 현실에 대한 불만 및 반려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원 관리자들은 실제로 이 같은 상황을 일일이 제지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반려견 동반 활동자와 일반 공원 이용자의 활동 영역이 분리된 어린이 대공원 보다는 개방된 공간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보라매 공원 ‘강아지 동산’을 중심으로 두 집단 간의 이용 실태를 살펴보기 적합하다. 반려견 동반 활동의 중심이 되는 ‘강아지 동산’ 뿐만 아니라 보라매 공원 전체의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보라매 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반려견 동반 활동자와의 원만한 공존을 위한 갈등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1) 문헌 고찰

전체적인 여가 활동에 대한 개념과 변화 양상을 살펴 현대의 여가 트렌드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반려견 동반 활동

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혹은 도시 공원에서의 반려견 문제에 대해 고찰하고 국내 반려견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기반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또한, 사례를 통해 해외 및 국내에서 공원 내 반려견 동반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서 반려견을 어떤 방식으로 공원 내에서 받아들이고, 관리하는지 조사하였다.

또한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신문기사,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등을 조사하여 미디어 분석을 하였다.

(2) 현장 조사 및 인터뷰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파악을 위하여 예비조사(2013.8.26.~9.2.)를 실시하였다. Google Drive를 통해 인터넷 상의 반려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온라인을 통해 총 29개의 주관식 응답을 수집하였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지에서 9~10월 중 일반 이용자와 반려견 동반 활동자 모두에게 반려견의 공원 입장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고, 또한 반려견 동반 활동 및 일반 이용자의 행태 관찰을 통해서 두 집단의 이용 행태 및 반려견에 대한 반응을 파악하였다.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Q 진술문을 구성하여 반려견 동반 활동자(18명), 일반 이용자(26명), 공원 관리자(6명) 등 50명을 대상으로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수집하였으며, 유효한 값이 나타난 40명의 인식을 7개의 유형으로 나누었다. 그 중 적합하지 않은 2개의 유형을 제외하고 총 36명 5개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3) 대상지 선정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내 도시 공원 중 반려견 동반 활동이 장소화되고 있는 대상을 선정하였다. 보라매공원은 자생적으로 ‘강아지 동산’이라는 일부 공간을 중심으로 반려견 동반 활동자의 이용이 빈번한 공원이며, 일반 이용자와 반려견 동반 활동자의 활동이 혼재된 채로 이용이 되고 있다. 두 집단 간의 갈등 및 공존

양상을 살피기에 적절한 대상지이다.

(4) 자료 분석 및 갈등 완화 방안 모색

Q 방법론을 활용하여, 반려견 동반 활동자, 일반 공원 이용자, 공원 관리자들에게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SPSS Ver.21을 통해 자료 분석 하였다.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분류된 인식의 유형을 토대로 보라매 공원의 현재 상황에 적절한 갈등 완화 방안을 공간적, 프로그램적, 제도적으로 제안한다.

3. 연구의 구성

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장	<div>이론적 고찰</div> <div>여가 활동 및 여가의 사회심리적 작용 반려견의 사회 문화적 여건 도시 공원 내 반려견의 출현</div>	
3장	<div>도시 공원 내 반려견 동반 활동 실태 및 인식조사 분석</div> <div> <div>미디어 분석 실태 및 현황 분석</div> <div>Q 방법론을 통한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인식</div> </div>	
4장	<div>도시 공원 내 반려견 동반 활동으로 인한 갈등 완화 방안</div> <div> <div>프로그램적 방안 물리적 방안 제도적 방안</div> <div>갈등 완화 방안의 단계적 도입</div> </div>	
5장	<div>결론</div> <div>연구의 종합 / 의의와 한계</div>	

[그림1-1] 연구 흐름도

제2장 이론적 고찰

제 1절 여가 활동의 사회 심리적 작용

여가는 한 가지 의미로 정의할 수 없고,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여가에 대한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 ①시간 개념으로 여가, ②활동 개념으로 여가, ③의식 개념으로 여가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여가란 ‘생리적 필수 시간과 노동시간을 제외한 여가 시간에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한 어떤 활동에서 기쁨, 만족감, 나아가서 자아실현을 하는 것’ 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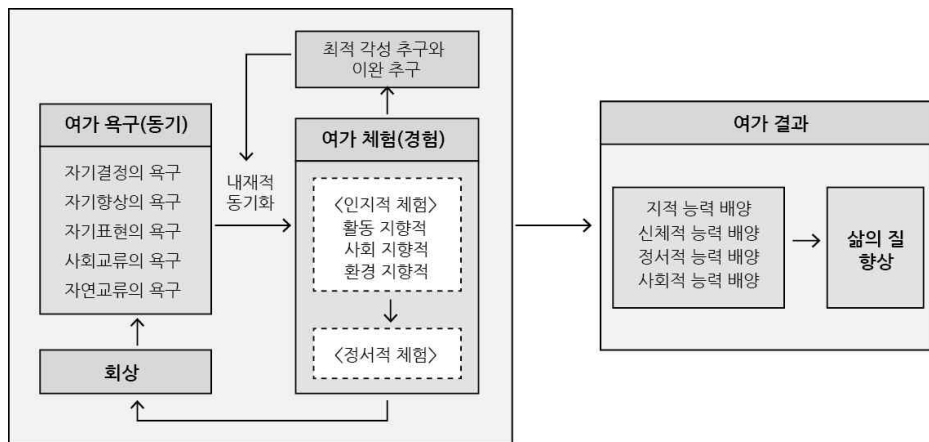
여가 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로, 여가 공간의 양적인 확대가 나타났고 이에 따른 질적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윤주, 2009) 물리적, 제도적으로 여가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가 활동을 통해 인간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가 활동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심리적 과정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 여가 사회 심리학은 여가 행동과 심리 상태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며, 특히 여가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 여가를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심리적인 기제, 행동 성향을 보이게 만드는 영향력의 관계 등에 대하여 접근한다.¹³⁾ 여가의 사회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여가 활동을 촉진시키거나 저해시키는 심리적 요인을 살펴 보고, 여가 활동의 만족과 불만족에 대해 고찰하였다.

12) 노용구 『여가학』 (대경북스, 2001) pp.62-69

13) 이철원, 『현대 여가학』 (대한미디어, 2002) p.105

1. 여가 행동 과정 이론

여가란 참여자가 주관적인 경험을 즉각적으로 얻기 위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한 활동이며, 이 활동을 하는 동안 참여자는 일련의 경험 과정을 겪게 된다고 했다. 여가 활동의 경험과정은 크게 동기, 활동체험, 결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다.(성영신 등, 1996) [그림 2-1] 여가 경험의 과정을 통해 나온 결과는 후에 다시 여가 활동을 할 때 동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2-1] 여가 행동 과정 이론(성영신 등, 1996)

(1) 여가 동기

동기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movere’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움직이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인간이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움직이게 하는 근원이 동기임을 알 수 있다(박용선, 2007).

여가 동기는 여가학 연구에서 핵심적인 관심분야 가운데 하나로서, 여가경험에 앞서서 개인이 어떤 여가활동을 선호하고 선택하여 참여하게 되는 의식적·무의식적인 이유를 말한다.(김영재, 2008) 여가 동기는 개인이 여가 활동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여러 욕구와, 자극(환경변화)을 추구하거나 자극을 회피하려는 개인의 심리적 추동에 의해 야기 된다¹⁴⁾.

14) 노용구, 앞에 든 책 2001 p.166

(2) 여가 경험

여가 경험이란 개인이 가진 여가 동기와 주어진 환경의 상호작용 하에서 수반되는 인지적, 정서적 심리상태로서 재미, 즐거움, 편안함, 무아지경 등을 체험하는 과정이며 여가 동기에 대한 내재적 보상이라 할 수 있다.(성영신 등, 1996)

여가 경험을 구분하는 근거로 세가지 심리상태가 있다. 인지적 자유(perceived freedom), 내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 그리고 인지적 유능감(perceived competence)이다. 인지적 자유란 여가 에 참여하는 주체자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어떠한 제약이나 강제성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내적 동기는 자발적으로 만족하며 그리고 즐거움을 가지고 여가에 참여하게 되는 상태를 이른다. 인지적 유능감은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본인이 지니고 있는 여가 기술이나 능력에 대한 정도를 인지하게 되는데 인지적 유능감이 높을수록 좀 더 자발적으로 만족을 가지고 여가에 참여하게 된다.¹⁵⁾ 이 같이 여가 활동 시에 느끼는 심리상태들은 앞으로 여가를 지속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3) 여가 결과

여가 결과란 경험의 최종 결과로 나타나는 의식적, 무의식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지적·정서적·신체적 능력의 고양과 대인 관계 기술의 확장, 규범 의식 배양 등이 포함된다. 여가 활동은 보다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며 개인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구체적인 활동을 통한 여가 경험은 차후의 여가 욕구와 심리적 추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개인에 있어서 여가 과정은 끊임없는 심리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성영신 등,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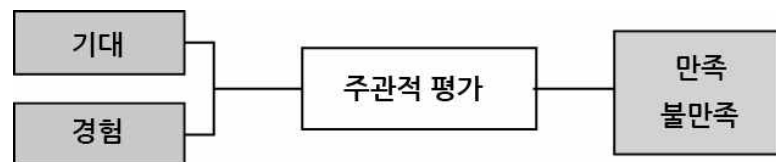
2. 여가 만족

여가 활동을 경험 한 후 그 경험의 결과가 긍정적인지 혹은 부정적인지 개인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며, 결과가 만족스러운지 불만족스러운지에 따라 다음에

15) 이철원, 앞예든 책, 2002 pp.107-108

여가 활동을 할 시에 영향을 미친다. 박경란(2009)은 여가만족을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 주관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극히 개인적인 감정이라 하였으며, 여가활동의 선택과 참가를 규정하며, 지속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하거나 흥미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전미리, 2011: 17. 재인용)

Van Raaij(1981)은 여가 만족에 대해, ‘미리 기대한 수준과 실제로 경험한 결과와의 비교를 통한 감정의 현상’으로 해석하였다. 기대한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어 기분이 좋으면 만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기대한 것보다 나쁜 결과를 얻게 되어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이면 불만족한 것으로 보았다.(박수정, 1996: 26. 재인용)



[그림 2-2] 기대와 경험에 의한 주관적 만족도(박수정, 1996: p.26)

이 같이 여가에 대한 경험은 주관적으로 평가되며, 만족과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여가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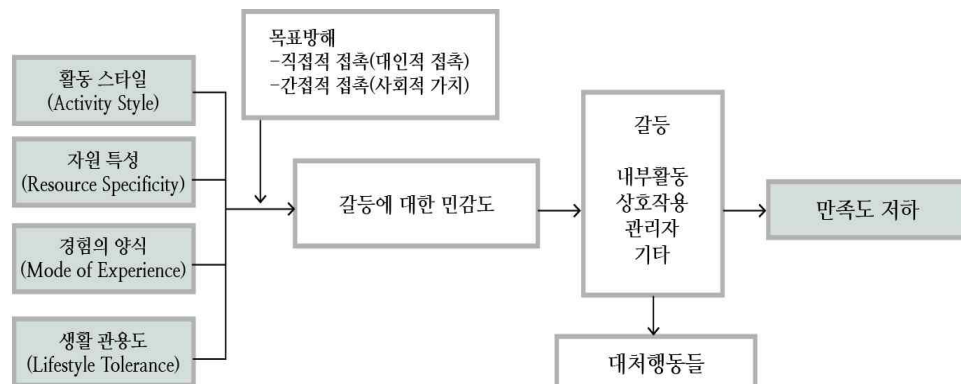
여가활동의 결과는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여가활동의 부정적인 결과로써 여가 갈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최근 여가 활동의 증가로 도시공원과 같은 생활권 여가 공간에서 여가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여가갈등은 참여자들이 여가 자원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이용자들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한다(Jacob & Schreyer, 1980).

여가 갈등의 원인은 개인적 및 사회적 요인 때문에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

문에 개인과 개인사이, 집단과 집단사이, 개인과 집단 사이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여러 학자들이 여가 갈등의 발생 요인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Jacob과 Schreyer(1980)는 여가 갈등을 ‘목표방해’ 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며, ①활동의 종류(type of activity), ②특정한 자원의 중요성(Importance of a specific resource), ③환경이나 종목에 집중한 정도(the extents to which the individual is focused on the enviroment or activity), ④다른 생활방식에 대한 관용(tolence of different lifestyle)에 따라 여가갈등은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Manning(1999)은 문헌고찰을 통해 여가갈등의 ‘목표방해모델’ 을 규정하였는데 이 모델의 간략한 구조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그림 2-3]



[그림 2-3] 목표방해모델 (Manning, 1999, pp.194-206)

전미리(2011)는 한강공원에서 자전거 이용자와 도보 산책자 간의 여가 갈등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기존의 목표방해모델에 공원 이용자 관리, 공원공간계획을 갈등의 원인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개인적인 대립과 구조적 대립으로 갈등 유형을 재분류하였다. 반면, 김지혜(2010)는 자전거 이용자와 도보산책자의 레저갈등에 대한 연구에서 참여자의 강도, 자원경합, 시설, 속도를 그 요인으로 밝히고 있다.

Jackson and Wong (1982)은 여가 갈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참여자의 동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참여를 하기 위한 동기의 성질과 강도가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한다는 것이다.(한우진, 2005: 736. 재인용)

그 외에도 세대, 인종, 남녀 같은 문화적 요소 및 개인적 요소가 여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Ewert(1999) 등은 여가갈등을 요구기준(Demanding standards), 지배(Control), 권한(Entitlement), 부착(Attachment), 동일(Alikeness), 개인적 소유(Personal belonging), 자기기준(Self reference), 방식(Style) 등 8가지의 개인적 개요로 구분하였다. (전미리, 2011: 28 재인용)

또한, 참여 동기, 사회적 규범준수여부, 인식된 그룹의 유사성, 기술적 동력 사용 여부, 장소 애착 정도, 자원을 공유하는 그룹에 대한 관용도, 다른 활동과 조우되는 기대감, 안전에 대한 관심, 등 다양한 요인들이 여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여가의 부정적인 경험은 결국 여가공간에서 타인과의 물리적·심리적 충돌을 경험하면서 발생하며 이는 한시적인 감정이 아닌 여가참여자 집단 간 여가갈등으로 심화되고 곧 여가 불만족으로 이어지게 된다.

여가 활동의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여가 불만족을 야기하는 여가 갈등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제 2절 반려견의 사회문화적 여건에 대한 고찰

국내에서 반려견 문화가 정착되면서 반려견에 대해 사회적으로 변화를 겪고있다. 이서윤(2009)는 반려동물의 사회적 의미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 반려동물은 소비하는 상품에서 정서적 교류를 할 수 있는 반려자라는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 둘째, 기존의 가축이라는 생존 수단의 의미보다는 반려자로서 반려견 자체가 목적, 즉, 반려견과의 관계에 의미를 두게 되었다. 셋째, 반려견과 개인과의 교류를 넘어서, 반려견을 키움으로써 다른 인간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반려견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국내에서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

한 인식이 공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우리 사회에서 반려견을 중심으로 나타나
는 갈등의 원인이기도 하다.

국내의 반려견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여건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 사회의
반려견에 대한 인식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개’에 대한 다른 시각

고대시대부터 개는 인간을 위한 사냥이나 방법을 위한 용도로 이용되어 왔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식용을 위한 수단으로 길러져왔고, 현대까지 이러한 풍습이
이어져오고 있다. 이 같이 개는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다른 재산과 달리 생명을 가졌다는 점에서 정서적 교류를 나누는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나 주된 가치는 ‘실용성’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¹⁶⁾

근대로 오면서 개의 지위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개를 단순히 가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목적 그 자체로 곁에 두고 기르기 시작했다. 인간에게 장난감
이나 노리개감이라는 이미지를 갖는 애완동물이라는 말 대신에 가족이나 친구, 인
생의 동반자, 즉 반려자와 같은 존재라는 의미의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이 쓰인
다.¹⁷⁾ 개를 기르는 사람들은 ‘개’를 가족처럼 대하며 곁에 두는 ‘반려’의 개
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반려’의 개념이 정착되기 시작했으
며, 그 역할이 다소 변화되었지만, 고대 때부터 이어져온 ‘개’의 실용적 개념도
공존한다. ‘개’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 역할은 경찰견, 시각
장애인 안내견, 정서적인 효과를 이용한 치료견까지 다양하다. 더욱이 우리나라에
서는 ‘개’를 식용의 목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식용 및 가축으로써
‘개’는 학대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정서적인 목적으로 ‘개’를 인식하는 사
람들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한다. 반면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개’를 가축

16) 이서윤, 현대한국사회에서 ‘애완동물’의 사회학적 의미,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pp.35-36

17) 남순예, “유기체 철학의 관점에서 동물에 대한 고찰” 『철학논총』, 64, 2011 p.209

처럼 생각하는 반려견 문화에 대해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문화라는 인식도 공존하고 있어, 개를 키우는 사람들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2. 반려견 산업의 성장

우리나라에 반려견 수가 급속하게 증가한 만큼 반려견 문화 또한 빠르게 형성되었다. 위에서 고찰하였듯이 두 가지 인식이 혼재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빠르게 성장한 반려견 문화는 시민의식의 부재로 미성숙하게 자리 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반려견들의 대우도 천차만별이다.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보다 더 나은 의식주를 향유하는 반려견도 있는가 하면, 가축이나 유기견으로서 생을 마감하는 반려견도 있다.

우리나라 애견산업은 타산업과는 달리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체계적인 대책 없이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애호가 증가와 핵가족·만혼·높은 이혼율, 노인세대의 증가 등과 같은 자연 발생적인 여건에 힘입어 자생적으로 성장해왔다. (이강원, 2010) 따라서, 반려견 산업은 애견인구의 급격한 증가 추세와 함께 성장해왔다. 1990년 반려견이 수입되기 시작한 이래로 애견 인구는 꾸준히 증가추세였으나, 2005년 655만 두에서 2006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여 2012년에는 440만 두로 추산되고 있다¹⁸⁾. 반려견의 수와 함께 애완동물¹⁹⁾ 사업체 수 또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수는 2003년에 정점을 찍고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여 왔다.[그림 2-4]

반려견 수와 애완동물 관련 사업체 수는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애완동물에 대한 지출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그림 2-5] 또한, 고가 애견용품 매출도 급성장세이다. 인터넷 쇼핑몰 ‘11번가’의 지난해 고가 애견용품 매출은 2011년에 비해 100% 늘었다. 유기농 사료 매출은 4084%나 폭증했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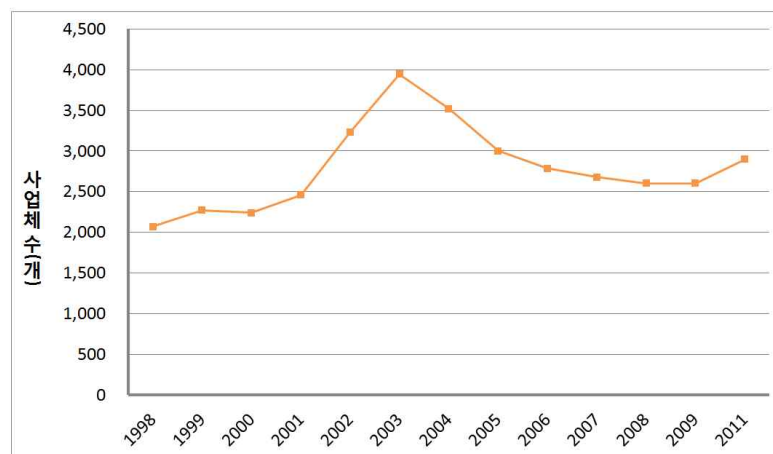
18) 『201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2012)

19) 애완동물의 전체 비율 중 애견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애완동물 산업 추이와 유사할 것이라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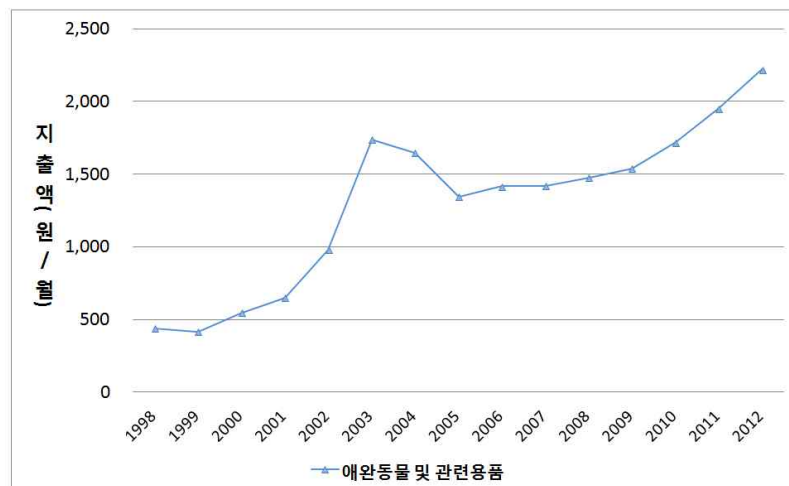
20) 전수민 “불황에 애견팔자도 양극화” 『국민일보』 (2013년 8월 27일)

반려견 수 및 애완동물 관련 사업체 수는 감소했지만, 애완동물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신연호(2007)은 선진국처럼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적 거품이 제거되며 질적 궤도를 잡고 있는 상태라고 해석했다.

농협경제연구소(2013)는 사회적인 핵가족화와 고령화 진행으로 독신자와 노년층이 증가. 소외감 심화로 이들 중심의 애완동물 수요가 증가하고, 2020년에는 국내 애완동물 시장이 6조원대로 커질 것 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림 2-4]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체 수 변화 추이
*자료 : 시도 · 산업 · 사업체구분별 사업체수, 종사자수(통계청)



[그림 2-5]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에 대한 지출
*자료 :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통계청)

이와 같은 애완동물관련 산업의 급격한 성장은 애완동물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나 동물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양적 팽창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이서윤, 2009)

반려견에 대한 책임 의식 부족의 그 대표적인 현상으로 유기견 문제가 있으며, 유기견의 수는 꾸준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표 2-1]

[표 2-1] 연도별 유기견 발생 현황

(단위 : 마리)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0,068	17,413	10,068	37,739	54,200	50,682	49,514	57,893	55,902	59,168

*출처 : 연도별 유기동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참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현행 동물보호법상 보호소로 들어온 유기동물은 10일 이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유기동물의 소유권이 시·군·자치구에 귀속되어 안락사의 대상이 된다(조중헌 2013). 이 같이 유기 동물들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유기동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정착되고 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동물 등록제’는 농림수산물식품부가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을 대상으로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의무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한 제도다,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책임감 있는 사육을 의무화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²¹⁾

하지만 포획되지 못한 유기 동물들은 학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동물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학대’의 경우, 과실범 내지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학대의 개념이 불명확하며 중요한 조항들이 권고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소극적 적용의 문제 및 규정상의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배의철, 2012; 조중헌, 2013: 33. 재인용).

21) 장은혜, 살아있는 쓰레기, 유기동물의 보호시스템 실태와 개선방향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p.19

신연호(2007)는 국내 반려동물에 대한 제반적 문제들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 사회 모두가 이제 반려동물과 인간의 올바른 유대관계, 생명가치의 존엄성, 반려동물인과 비반려동물인의 상호이해, 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등이 확립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동물의 의식수준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였다.

3. 반려견의 정서적 의미

인간이 동물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HAB(Human Animal Bond)라고 하는데 이 개념은 사람과 자연과 동물의 삼각관계가 건강하여야 사회가 건강하고 인류가 건강하다는 이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의 구성에 따라 근래에는 동물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간관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간접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정상규, 김용구, 2007)

김세영(2013)은 개인의 성격특성, 애착유형, 사회적 지지수준, 개에 대한 애착정도, 외로움 정도, 개인적 배경, 반려견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여 반려견 소유와 외로움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반려견에 대한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외로움의 수준이 더 낮아진다는 것을 밝혔으며, 반려견에 대한 애착을 통해 가족 역기능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Zasloff와 Kidd(1994)도 노인과 독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경우보다 외로움을 적게 느낀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연구는 반려동물 기르기가 현대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현대인이 외로움과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였다.(문영희,2011; p468) 반려동물은 사회적, 촉각적 접촉의 원천으로 사회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서적 지지체계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우울증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또한 변화하는 사회구조 체계에서 반려동물이 가족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심리적 지원체계가 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문영희, 2011)

특히 현대 사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또한 그 어느 시기보다 정신적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에게 정신적, 정서적 만족감과 유대감을 줄 수 있는 매개체로 동물들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는데, 반려동물은 인간이 다른 인간과의 지지적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및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cNicholas, Collis and Morley, 1995; 이은희, 2011: 56. 재인용).

이런 반려견의 정서적인 효과는 여러 문헌에서 반복 증명되고 있으며 나아가 정신적 치료의 목적으로도 이용된다. 1964년에 미국의 소아 정신의학자 보리스 레빈슨은 정신장애를 치료하는데 애완동물을 이용한다는 의미에서 처음으로 ‘동물 치료(pet therapy)’ 라는 용어를 만들어 냈다.(Serpell, 1996)

애견을 통한 치료의 기능으로는 운동기능을 향상시켜 육체적 기능을 회복하고, 정신적 기능을 회복한다. 그리고 자기 표현능력이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관심과 대화를 촉진시키며 놀이와 레크리에이션 능력을 증가시키고 자존감을 키워준다. 더불어 근심과 걱정을 해소하고 고독감을 감소시켜준다. 또한 어휘력을 향상시키며, 기억력을 증진시키고, 시각적 개념과 인식능력을 증가시켜 교육적인 기능을 회복한다. 동물매개요법은 이에 따라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고, 치료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기능을 가진다.(정상규, 김용구, 2007: 16)

이 같이 반려견의 정서적 효과는 개인적인 외로움의 해소를 넘어서 치료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제 3절 도시 공원 내 반려견의 출현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 종류 또한 다양해졌지만 특히 반려견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은 반려견에 대한 문제이다. 도시 내 타 반려 동물에 비해서 활동량이 많은 반려견들은 대부분 하루 종일 좁은 실내에서 생활하

고, 이 같은 상황은 스트레스로 인한 이상행동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에게는 산책만이 이 같은 스트레스에서 벗어 날 수 있는 탈출구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이런 활동들은 주거지 인근이나 공원에서 일어난다. 이 때문에 공원 내의 다른 일반 이용자와 반려견에 대한 위생, 위험성, 배변처리 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1. 선행연구 고찰

반려견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반려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 도시 내 공동주택 및 공공공간 등에서 반려견과의 갈등이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반려견과의 공생을 위한 공간의 필요성 및 시설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반려견 전용공간이 전무한 국내 상황에 맞추어 전용공간의 계획요소와 같은 물리적 제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김선아(2005)는 반려견을 기르는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반려견과 공생하는 주거환경 요소에 대한 거주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계획요소를 실내, 실외, 설비 세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실내 및 설비 측면에서는 청결 및 관리차원의 계획요소를 제안하고 있지만, 실외 계획요소에서는 반려견과 다른 거주자와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별도의 산책로, 승강기 내 반려견 탑승 표시등, 세족시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임수희(2005)는 반려견 행동특성 및 반려견 소유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애견공원 시설 항목을 도출하고 애견공원의 유형을 일반형, 관리 및 서비스 시설형, 특수목적형, 레크리에이션형(테마파크형)에 따라 시설 항목을 선정하였다. 나아가 관리 및 운영, 이용규칙 등을 제안함으로써 앞으로 조성될 애견공원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나아가, 반려견 전용공간에 대한 물리적 제안을 넘어서 그 시설의 의미와 파급되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내 반려견 전용 공간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도 지속되고 있다.

이형숙(2009)은 일본의 공원 내 도그런 정착 사례를 통해 도그런 시설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고찰하고 국내 공원 내 반려견 문제의 해결책으로 도그런 시설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도그런 시설 도입에 앞서 도시 반려견 관리를 위한 사회적 시설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이형숙(2010)은 도시 공원 내 반려견으로 인한 갈등의 해결방안으로 애견전용 공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공원 이용자들의 인식과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로 반려견 사육자 뿐 아니라 비 사육자 역시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를 피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애견전용공간 설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반려견을 위한 공간은 반려견 혹은 반려견 소유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것에서 나아가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도시 공원 내 문제의 해결책으로 반려견 전용 공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까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반려견에 대한 인식이 혼재되어있는 현재 상황의 갈등 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점을 찾아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도시 공원에서 반려견 동반 활동의 필요성과 그 긍정적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도시 공원 내에서 반려견 동반 활동의 의미

(1) 반려견에게 미치는 효과

반려견 동반 활동은 신체 활동을 통해 반려견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넘어서, 반려견에게 정서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반려견의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Margaret C. 등(2005)은 운동 중의 산책은 일시적인 식욕 억제 효과와 육체 및 정신적인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에너지의 섭취와 소비의 불균형을 줄이고 칼로리의 소모량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산책을 시키는 것이 비만과 건강을 지키는 일부분으로 가족 구성원의 협력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이해연, 2013: p.37에서 재인용)

반려견의 공격적 성향의 감소와 정서적 안정은 이상행동이나 짖는 행동 또한 줄어들게 만들어, 이웃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반려견 전용 공간이 생겨나면서 반려견 동반 활동을 장려하는 효과도 있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도시 내 반려견으로 인한 갈등 완화의 가능성이 있다.

(2) 신체적 건강 증진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은 반려견이 건강 문제 때문에 반려견의 산책을 의무적으로 한다. 하지만 반려견 동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반려견의 건강 증진 뿐 아니라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의 신체적 활동이 더 빈번해지면서 이에 따른 건강상의 혜택을 받는다. 이 같은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Coleman(2008)은 반려견을 키우면서 산책을 나가는 사람과 키우면서도 산책을 가지 않는 사람 그리고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간의 비교를 통해 신체적 활동량과 비만도를 비교하는 설문 조사 및 비만도 조사를 하였는데, 실제로 반려견을 키우면서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이 신체적 활동량이 많고 비만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rown and Rhodes(2006)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운동 시간을 비교했을 때,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의 평균 걷기 운동시간은 일주일에 168분인데 반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300분 간 걷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반려견을 돌봐야 한다는 의무감이 산책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반려견을 키우면서 부수적으로 신체적 증진 효과도 얻을 수 있다.

(3) 사회적 교류

반려견과 함께 신체적 활동을 할 때, 더 많은 사회적 교류를 경험할 수 있다.

McNicholas & Collis(2000)의 연구에 따르면, 반려견을 동반 했을 때와 동반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했을 때, 반려견을 동반 했을 때, 사람들과의 소통 횟수는 156건, 반려견을 동반하지 않았을 때 소통 횟수는 50건으로 반려견을 동반했을 때

가 타인과의 소통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Wood(2005)는 반려견 주인과 그 이웃 그리고 더 넓게는 지역 커뮤니티까지 긍정적인 사회적 접촉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보다 커뮤니티에 대한 친밀감이 높고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체적으로 사회적 자본 척도에 대해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밝혔다.

반려견 동반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개인적인 사회적 교류는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도시에서 반려견의 역할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촉진제라고 할 수 있다.(Wood, 2005)

3. 반려견 동반 활동의 장으로서 도시 공원

(1) 반려견 동반 활동의 필요성

앞서 고찰했던 내용처럼 반려견의 신체적 활동을 통해서 활동량을 소모함으로써 반려견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반려견의 이상행동 교정으로 이웃과의 마찰을 줄일 수도 있다.

Harlock Jackson(1995)의 오픈스페이스와 반려견에 대한 보고서에서 반려견의 공원 입장의 필요성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반려견의 공원 입장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도시 속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으며, 공원 이용자로서 그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책을 통해 반려견의 행동교정이 가능하여 반려견의 공격적 성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셋째, 반려견 동반 활동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원 방문을 통해 신체적 증진 효과가 있으며, 반려견 동반 활동시에 사회적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넷째, 밀도 높은 공동주택이 많은 도시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고자 하는 요구가 커지기 때문에 반려견의 공원 입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섯째, 반려견에게 엄격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 보다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법적 준수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Batch, hale, Palevsky(2001)의 OLRA(Off-Leash Recreation Area)²²⁾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반려견을 자유롭게 뛰어놀게 했을 경우, 다른 반려견이나 사람들에 대한 공격성을 감소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 같은 야외 활동을 통해 다른 반려견과 만나면서 반려견의 사회성을 기를 수 있으며, 이는 반려견의 공격적인 성향을 줄어줄게 만들어 준다. 활동을 통한 교류로 인해, 반려견의 정신적 건강 상태를 안정시킬 수 있으며, 반려견 동반 활동자들은 이에 대한 결과로 반려견이 실내에서의 산만하고 공격적인 행동이 줄어들고, 훨씬 안정된 생태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처럼 반려견 동반 활동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마당이 없는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동반 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인근에서 접근할 수 있고, 차량과 같은 위험요소가 없는 도시 공원은 반려견 동반 활동의 최적의 공간이다.

(2) 사례 연구

반려견 동반 활동으로 인한 일반 이용자와 반려견 동반자와의 갈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도시 내 반려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견인을 위한 공원을 만들기도 하고, 도시 공원 내 반려견 전용공간들이 보급화 되어 있다. 반려견과 함께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소수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도시 내 주요 여가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 ■ OLRA (Off-Leash Recreation A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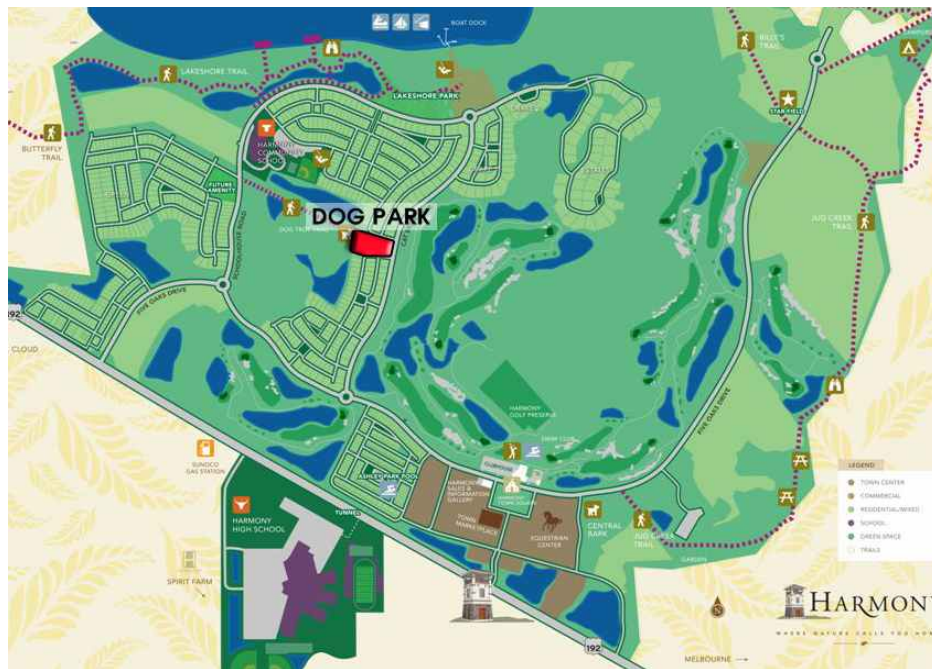
1970년대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OLRA(Off-Leash Recreation Area)가 만들어졌다. 2010년, 미국에는 569개의 OLRA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³⁾ 미국의 OLRA

22) 반려견의 목줄을 풀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도그런(Dog Run), OLA(Off-Leash Area), 반려견 운동장, 반려견 놀이터 등으로 불린다.

23) 위키백과 : 2010년 100개의 큰 도시에서 569개의 OLRA(Off-Leash Recreation Area)가 있는 것으로

는 공원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곳곳에 존재한다. 애견 전용공간은 반려견 동반 활동의 법적 규제를 어기는 것을 방지하게 할 수 있다. 반려견 동반 활동자들은 그들의 반려견을 법적으로 운동시킬 공간이 부재 때문에 목줄을 메야한다는 규제를 어기게 되는 것이다. (Krohe, 2005)

2003년에는 플로리다의 Harmony Community 주거단지 마스터 플랜에는 Dog Park가 포함되어 등장하기도 하였다.²⁴⁾ Harmony Community의 거주자들은 마을 어디에서든 800m 반경으로 Dog Park로 접근이 가능하다(Lee 등, 2009).[그림 2-6]



[그림 2-6] Harmony Community
출처 : www.harmonyfl.com

확인되고 있으며, OLRA는 5년간 34%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였다.

24) <http://www.ewire.com/news-releases/award-winning-town-of-harmony-welcomes-its-first-family/>
Award-Winning Town Of Harmony Welcomes Its first Family



[그림 2-7] Dog Park in Harmony Community [그림 2-8] Dog Park in Harmony Community
출처 : Google 이미지검색 출처 : Lee(2007) p52

이는 OLRA가 반려견을 위한 시설일 뿐만 아니라 도시 내 반려견 관리 및 복지 시설로서 자리잡고 있다.

일본은 도쿄에서 2002년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공원 시설로서 Dog run이 도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타 여가 시설 및 공원 시설보다 면적당 이용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Dog run 설치이후 공원 입장객 수가 크게 늘었다.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원 봉사 그룹을 만들어 Dog run이 운영되고 있어, 운영비 절감 및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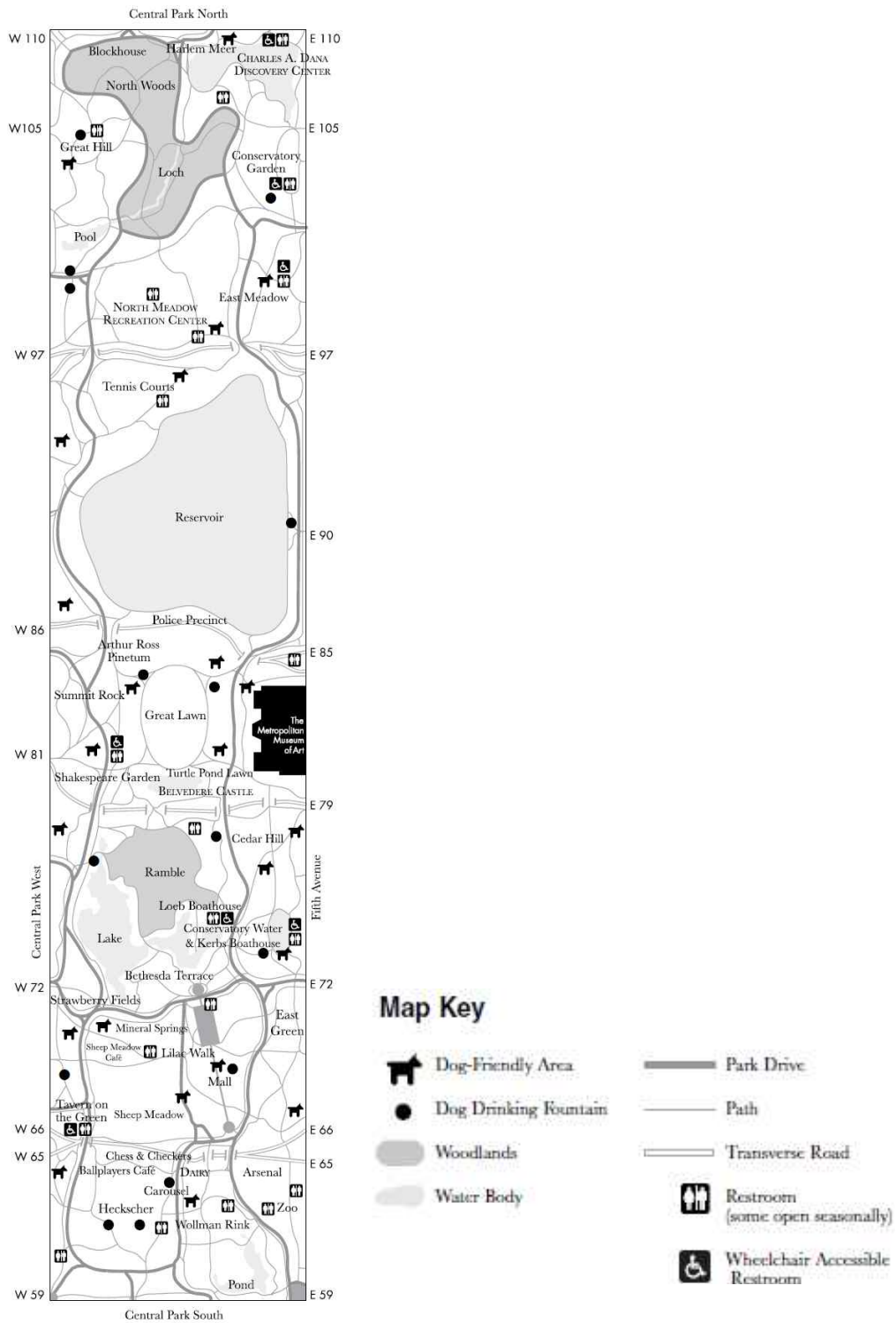
[그림 2-9] 도쿄 요요기 공원 내 Dogrun
출처 : Google 이미지 검색

25) 이형숙(2009) “공공시설로서 공원 내 도그런에 관한 연구 : 동경 도시공원의 도그런 사례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 공원 내 반려견 규제

일반 공원 내 반려견 동반 활동을 위해서 OLRA의 도입 뿐 아니라 반려견 공원 출입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으로 공원마다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기도 한다. 미국 센트럴 파크에서는 공원 내 반려견이 입장가능한 공간과 입장 불가능한 공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놀이터, 분수, 보존되고 있는 수변공간, 야구장 등의 공간에는 반려견의 입장이 항상 제한되며, 곳곳에 23개의 반려견에게 친화적인 공간(Dog-friendly Areas)을 구분하고 있으며, 반려견에 관련된 시설물들을 배치하고 있다. 또한, 목줄을 착용해야 하는 시간(9:00~21:00)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오전 6:00~9:00, 저녁 21:00~1:00)을 구분하고 있다.²⁶⁾ [그림 2-10]

26) Central Park Conservancy, <http://www.centralparknyc.org/visit/general-info/rules-regulations/>



[그림 2-10] 센트럴파크 Dog-friendly areas

*출처 : Central Park Conservancy : A dog owners guide to central park.

■ 국내의 애견전용공간

최근 국내에서도 애견전용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의 Dog park들이 국내에도 소개되면서 애견인들의 이 같은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여 울산시에서는 지자체 최초로 2012년 3월 ‘애견운동공원’을 조성하였다. 반려견이 산책을 할 수 있는 운동장과 어질리티가 갖추어져 있으며, 수영장도 조성되었다. 그 외에도 반려견 동호회실과 애견숍, 응급처치실같은 시설도 있으며, 애견문화교실 또한 시행되어, 올바른 반려견 문화 정착에도 일조하고 있다. 울산애견운동공원은 반려견 동반자들만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서울시, 성남시에서도 애견운동장을 만들기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원 내에서 반려견과 일반 이용자 사이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그들만의 공간을 애견운동장의 형식으로 따로 마련해 주었다.



[그림 2-11] 울산애견운동공원

출처 : google 이미지 검색

24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해 9월 분당구의 탄천변에 375㎡ 규모로 ‘반려견 놀이 공간(애견 운동장)’을 조성하였다. 성남의 애견 운동장은 기둥 네개를 땅에 박고 그물망을 쳐놓은 이동시설에 불과하지만 인근 지역에게까지 소문이 나 애견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²⁷⁾ 현재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 내에 내년 6월까지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7) 신선미 “애견운동장 설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인일보 2013년 3월 25일)

2013년 7월 서울시에서도 어린이 대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개장하였으며, 10월 16일까지 3400마리의 반려견, 4800여명의 시민이 이용하였다.²⁸⁾ 반려견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시설이 생겼다는 데에 애견인들 사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지만, 기존 산지에 그대로 펜스를 두르고 충분치 않은 공간과 빈약한 시설에 대한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28) 홍지민 “[주말 인사이드]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옆 반려견 놀이터 가보니” 『서울신문』 (2013년 10월 19일)

제3장 도시공원 내 반려견 동반 활동 실태 및 인식 조사 분석

제 1절 도시공원 내 반려견 동반 활동 실태 및 인식 조사 분석 개관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갈등간의 관계 및 이에 대한 해결점을 도출하기 위해, 공원 내에서 나타나는 활동이나 인식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실제 공원 행태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미디어 분석을 통해 사회전반적인 반려견의 공원 이용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고, 반려견 동반 활동의 조사 및 분석은 현장조사, 관리자 인터뷰를 통해 반려견 동반 활동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진술문을 구성하여 Q 방법론을 통한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 Q 방법론을 적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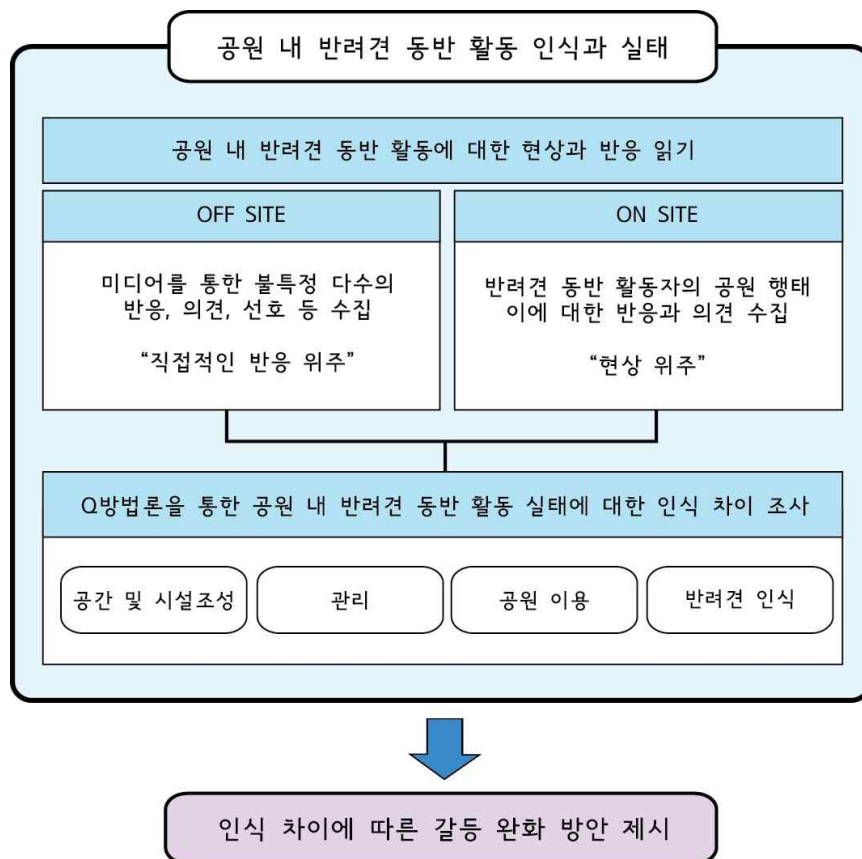
첫째, Q 방법론은 종합적으로 응답자의 태도에 대한 통찰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공원 내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이용자와 일반 이용자 서로 느끼고 있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의 정도, 필요한 시설이나 공간,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선호, 인식 등 전체적인 모습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Q 방법론은 비슷한 태도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유형화하고, 이

를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이 Q 진술문을 이용하여 공원 내 반려견 동반 활동자, 일반 이용자, 관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반려견 동반 활동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알맞은 연구방법이다.

셋째,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이론이나 현상을 분석할 수 있다. 공원 내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갈등 양상이나 사회적으로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유형에 대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아, Q 방법론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 분석과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Q 진술문을 구성하였으며,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과 태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Q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만들어 낸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3-1]



[그림 3-1] 연구의 틀

제 2절 미디어를 통해 본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사회적 흐름

입체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서 반려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담론의 흐름들을 미디어를 통해 분석하였다. 온라인 상의 미디어를 통해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 분석을 통해 보다 넓은 범위의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고자 한다. 뉴스 기사, 블로그,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게시물과 댓글들을 살펴보았으며, 범위는 반려견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2001년부터 현재시점까지 조사하였다. 특히 반려견에 대한 인식과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해 특히 도시 공원에 집중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1. ‘애완견’에서 ‘반려견’으로

점차 반려견과 인간이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반려견 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는 반려견이 관람이나 희롱의 대상인 ‘애완’ 견보다는 인간의 동반자, 즉 ‘반려’의 의미가 더 커져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려견을 가족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에게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반려견에게 투자하기도 한다.

“가족으로 대우받고 사람처럼 사는 애완동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 중고교생 6979명과 학부모 40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어떤 사람을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란 질문에 “애완동물”도 가족이라는 응답이 57.7%로 먼 친척 49.9%보다 높게 나타났다.(내일신문, 2011.03.07.)

“애완동물 한뼘 한뼘 명품 입는다” 업계에 따르면 ‘딩크족’과 ‘펫’의 합성어인 ‘딩크펫(DINKpet)’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자녀 대신 애완동물과 함께 가족을 이루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중략) “애완동물에게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들이 많아 수제, 천연간식 등 프리미엄급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노컷뉴스, 2012.11.22.)

고급화되고 있는 반려견 산업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사와 댓글을 통해서

살펴보면, 반려견들이 가족과 같은 존재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같은 소비 행태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반응은 과하다, 사치스럽다,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의견들도 나타나고 있었다.

“[한마당-김상길]애견과 기아” 하루에 5만명의 사람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세상에서 너무 호강하는 애견들이 있다. (국민일보 2005.06.13.)

“반려동물 전성시대... 유모차로 백화점가고 주치의 상담도” (한국경제, 2013.10.25.)
‘너무 유난을 떨면서 자기과시격으로 비싼치장하며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정말 꼴 불견이듯..’

‘개는 개처럼살아야지’

‘인간으로써 사고하지 말고 반려동물을 바로 보며 그들의 사고와 인식을 존중해줘야지 막연하게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동물 키우면 이견 동물에게 상처가 됩니다... 동물에 대한 애정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자유로운 의식을 존중해 줘야합니다.’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애견인이 느끼는 반려견에 대한 정서적 친밀감을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려견에 대한 이 같은 투자를 낭비라고 여기는 인식이 존재한다. 그것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인정하기 보다는 비난하는 어조로 반응이 나타나고 있으며, 반려견이 인간처럼 대우 받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2. 탈 고립화

반려견의 증가 원인과 애견인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소통이 단절, 독거 노인 및 독신 인구 등 1인 가구의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를 이야기 한다. 이들은 반려견을 통해 외로움을 달래며, 위안을 얻기도 한다. 반려견은 애견인들에게 생활의 중요한 일부이며, 고립된 삶 속에서 반려견의 존재는 소통의 통로가 된다.

“또 다른 가족, 애완동물”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정은혜(29·여)씨는 최근 1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이별했다. 일방적인 통보에 상처를 받은 그를 달래준 건 가족도, 친구도 아닌 닥스훈트 품종의 애완견 ‘짱아’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꼬리치며 달려와 품으로 파고드는 짱아의 애교에 위안을 얻곤 했다.(서울신문, 2010.07.28.)

반려견을 키우는 것은 정서적 외로움을 달래는 것을 넘어서 반려견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반려견 온라인 커뮤니티²⁹⁾를 살펴보면 지역별로 모임을 가지기도 하고, 애견샵, 애견 카페, 산책하기 좋은 공간 등의 정보를 교환한다. 사람들은 이 같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온라인 상으로 서로 친분을 쌓아가고, 오프라인 상의 만남으로 이어진다. 특히 지역별로 애견 카페나 산책하기 좋은 장소를 공유하며 함께 할 사람들을 모집하기도 한다. 이처럼 온라인 상의 정보가 오프라인상의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온라인 상에 공유된 정보에 의해 오프라인의 특정 공간이 장소화 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강아지 산책시키기 좋은 장소로 가까우신 분들은 보라매 공원 추천드려요~ 1시간 30분정도 산책했는데 보라매공원 강아지동산도 있어서 강아지들이 서로 교감하고 노는데 좋은거 같아요.(블로그 아름다운 사람 성형외과 ‘[강아지 산책 시키기] 귀여운 시츄 멍개와 즐거운 산책’)

목동의 애견인들 중심으로 매주 일요일에 모여서 조심스럽게 목줄을 풀어주고 강아지들을 1~2시간 놀게 해주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도 아니고, 영리단체도 아닌 순수하게 목동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심이에요. (‘강사모’ 서울권 강남 게시판 2013. 08. 10)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반려견을 키우기 시작하나 반려견 키우기는 그들로 하여금 더 넓은 범위에서의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3. ‘개인’ 에서 ‘공공’ 으로

반려견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와 함께 도시 내에서 불청객처럼 치부되던 반려 동물들이 도시 내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려견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중반에는 반려견에 대한 공원 출입문제, 공동주택 내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 공공에서 내세우는 대책보다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

29) 국내에서 가장 많은 90만명의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강사모(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 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들의 의식 수준을 요구하였으며, 반려견을 도시 내 불청객으로 바라보며 특히 마찰이 심했던 공원에서 입장을 금지하는 법안이 검토되기도 하였다.

“[인천/경기]인천대공원 애완견 출입금지 논란” (동아일보, 2003.08.10.)

“서초구 공공시설 애견 출입금지” (서울신문, 2004.08.17.)

하지만 최근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반려견 수가 늘어남에 따라 나타나는 유기견 문제, 학대문제, 공공장소 출입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면서 이에 대해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유기견 문제 및 반려동물 관리, 감독을 위한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서울시에서는 동물복지 관련 전담 부서를 설치했다.

“[반려동물 건강이야기]반려동물 놀이터...꿈에 불과한걸까?” 반려동물은 이제 어느 특정 개인들의 취미생활이라고만 바라보기에는 우리 사회 전반에 너무도 깊숙이 파고든 것이 현실이다. 이미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을 통해 학대금지 행위의 대상으로 규정됐고 올해부터는 반려동물등록제를 통해 법적으로도 관리 감독이 필요할 또 다른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규정됐다. (경향신문, 2013.02.20.)

“유기견을 장애인 도우미견으로” 도 동물방역위생과 관계자는 “도내에만 매년 2만8천여 마리의 유기견이 발생하고 있다”며 “버려진 생명을 독거노인에게는 친구, 장애인에게는 반려견으로 도움을 주기위해 나눔센터를 건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신문, 2013.03.14.)

여러 지자체에서는 반려견과의 여가 활동을 즐기고자 하는 수요를 반영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애견 테마파크, 애견 해수욕장 등과 같은 시설을 조성하여, 애견인들에게 크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어, 공원 내 애견 놀이터 같은 시설들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울산 남구 애견운동공원, 벤치마킹 잇따라” 울산시 남구청이 조성한 애완견과 함께 산책과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난해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애견운동공원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일보 2013.5.13.)

도시 내에서 반려견은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생명체로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4. 반려견 문화 성숙도

유기견의 수 증가, 공원에서 반려견 에티켓 문제들은 미디어에서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반려견 문화의 성숙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에 애견인에 대한 이러한 인식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어, 여전히 반려견과 함께 활동 시에 불편한 시선을 느끼게 된다.

“내 ‘애완견’ 남애견 ‘혐오견’ ” 애완견 관리를 소홀히 해 이웃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례가 늘며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중략) 김씨는 “아이들이 무서운 개를 보더니 얼굴이 사색이 돼 경기를 일으키며 달아나는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밀었다”며 “도시공원이나 공공장소에는 애완동물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대전일보, 2004.09.07.)

2000년대 초반부터 2013년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공원에서 반려견 에티켓 문제에 대한 기사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는 단순히 애견인과 비애견인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애견인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산책을 할 때 기본적인 매너도 지키지 않는 견주들을 보면 눈썹이 찌푸려지더라구요~ 이래서 나 같은 선량한 견주가 욕먹는 거 라구욧! (블로그 랑이네 식탁)

“모든 애견인이 ‘개똥녀’ 는 아닙니다” 모든 애견 동반자를 하나로 묶어 탑승을 금지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애견인구의 증가에 발맞춘 제도적 보완이 더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중략)

그리고 개를 키우는 애견인들도 상식에 맞는 애견사랑, 애견인으로써의 매너를 지켜 주변의 내 이웃들에게 당당히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성숙한 애견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오마이뉴스, 2005.07.25.)

“당신은 ‘pet’ 과 사랑에 빠질 준비가 됐나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무턱대고 기르기 시작했다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다면 반려동물에게도 주인에게도 상처로 남을 수 있다. 실제로 한 해 동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는 유기견은 10만마리에 달한다고 한다. 동물단체로 들어오거나 길거리를 떠

도는 경우까지 합한다면 유기견의 숫자는 20만마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려동물
을 끝까지 잘 기르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세계일보,
2013.04.25.)

이런 문제들은 반려견 동반자들의 책임감문제라고 볼 수 있다. 반려견에 대한
올바른 이해없이 무작정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지금의 산업구조 개선도 시급하
지만, 우선적으로 성숙한 반려견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제 3절 보라매 공원 내 반려견 동반 활동

1. 대상지 개요 및 주변 현황

보라매공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 대방로 219 일대인 옛날 공군사관학교 자리를 1985년 12월 20일에 보수하여 1986년 5월 5일 개원하면서, 공군사관학교 때의 상징인 “보라매”를 그대로 이름에 사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면적은 414.106㎡이며, 공원 내에는 한국자유총연맹서울시지회, 한국청소년연맹, 서울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동작구민회관,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남부장애인복지관, 동작경찰서보라매파견소와 2010년 5월 개관한 시민안전체험관 등 11개 기관이 입주하고 있다. 30)



[그림 3-2] 보라매 공원 안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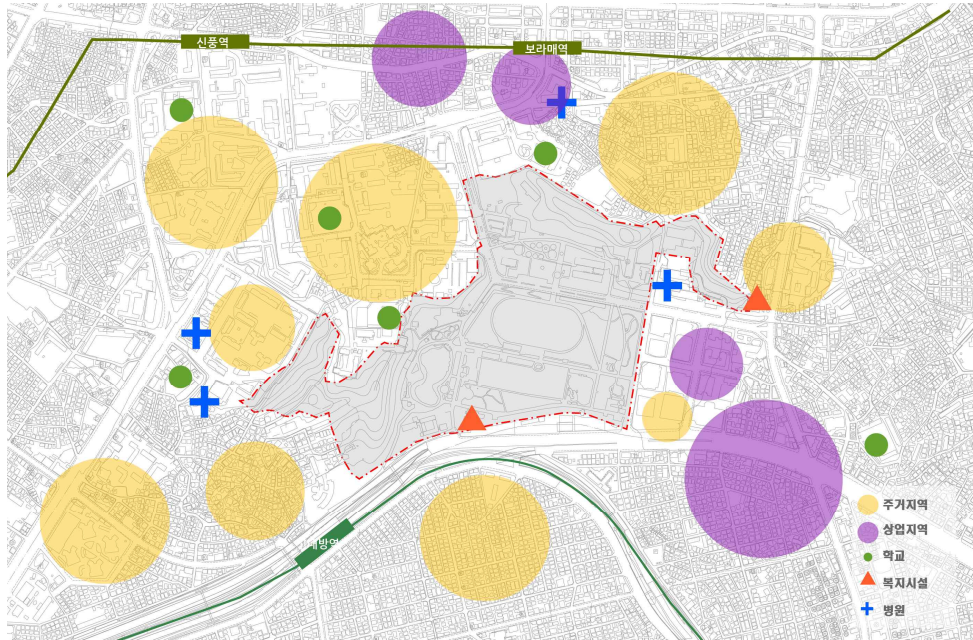
30) 보라매공원 웹사이트 http://parks.seoul.go.kr/template/default.jsp?park_id=boramae

보라매 공원은 2002년부터 재정비 사업을 시작하여 X-game장, 인조잔디축구장, 잔디광장, 에어파크, 향기원, 생태 연못, 음악분수 등과 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표 3-1]

[표 3-1] 보라매공원 시설 현황표

조경시설	: 잔디마당, 수경시설(연못, 벽천 등), 철쭉동산, 무궁화동산 등
운동시설	: 조깅트랙, 인조잔디축구장, 테니스장, 다목적운동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X-game장, 인공암벽등반장, 게이트볼장, 지압보도, 헬스시설 (평행봉 등 28종)
편익시설	: 주차장, 매표, 음수대, 팔각정, 화장실, 벤치
유희시설	: 어린이놀이터, 피크닉장, 바닥분수, 에어파크
교양시설	: 청소년수련관, 시민안전체험관, 동작구민회관
보안시설	: 시설물관리 감시용 CCTV 38대 24시간 녹화가동 중
입주시설	: 한국자유총연맹서울시지회, 한국 청소년 연맹,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동작구민회관,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지적장애인복지관, 서울시남부장애인복지관, 동작경찰서 지구대파견소, 공군법당, 청소년활동지원센터, 보라매안전체험관

대상지는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학교, 병원, 복지시설들이 분포되어 있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보라매 공원을 이용하고 있다. 대상지 동쪽으로 롯데백화점을 비롯한 상업지역, 보라매 병원 같은 시설이 위치해 있어, 유동 인구가 많으며, 이 때문에 동문의 이용률이 높다.[그림 3-3]



[그림 3-3] 주변 현황도

2. 대상지 이용 현황

공원 이용자들의 행태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행태지도 작성법(Behavior Mapping)³¹⁾을 사용하였다. 조사는 10월 17일, 10월 20일 오전(9:30~11:00), 오후(2:30~4:00), 저녁(7:30~9:00)으로 나누어서 진행하였으며, 각 구역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속기하였으며, 조사 때마다 같은 동선으로 이동하며 조사하였다.

이용자들의 행태 패턴을 동적, 정적인 것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으며, 일반 공원 이용자와 반려견 동반 활동자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표 3-2]

31) 이 방법은 활동도(Activity Mapping)작성법, 혹은 생태도(Ecology Mapping)작성법이라고도 하며, 물리적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 그 행동들을 그룹화하고 코드화하여 행태자료로 기록하고 배열하는 방법이다.(2003, 김개천, 김범중)

[표 3-2] 정적행태와 동적행태의 분류

행태 분류	
정적 행태	서서 대화하기, 피크닉, 앉기, 공연관람, 장기/바둑 두기, 먹기 등
동적 행태	산책, 뛰기, 인라인타기, 보드타기, 자전거타기, 축구, 족구, 게이트볼, 캐치볼 등

(1) 이용 행태 현황

평일 오전에는 주로 트랙 및 동선 위주의 동적인 행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용자들 대부분이 운동이나 산책을 목적으로 공원을 이용하고 있다. [그림 3-4]

평일 오후에는 비교적 공원 이용률이 높아지며, 노인이나 의 이용 빈도가 높다. 특히 보라매공원 호수가 근처에 노인들이 장기나 바둑을 두는 정적인 행태가 집중되어 나타난다. 잔디 광장 주변 피크닉장에서 정적인 활동이 다수 나타나고 있으며, 호숫가에도 많은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다. [그림 3-5]

평일 저녁에는 집중적으로 트랙 이용률이 높으며, 청장년층의 체육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농구장이나 인라인 스케이트장 같은 스포츠 활동을 위한 공간에 대한 이용 빈도가 다른 때보다 높아지며, 동선 위주로 산책하는 이용객들이 많다. [그림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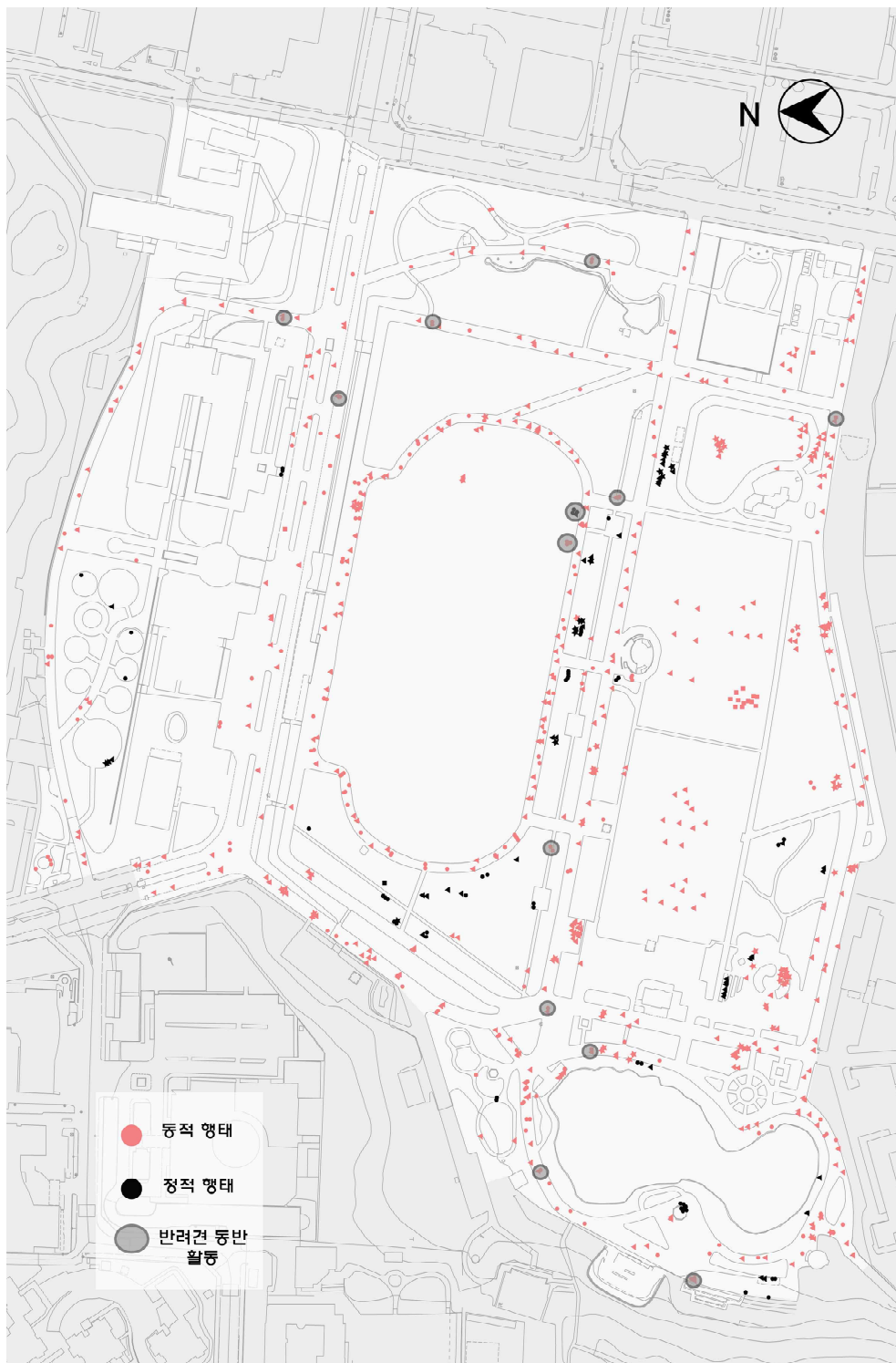
주말 오전에도 운동 및 산책을 목적으로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으며, 트랙 및 주 동선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그림 3-7]

주말 오후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때이며, 특히 정적인 활동이 증가하며, 잔디광장 및 피크닉장에서 피크닉을 즐기곤 한다. 이처럼 밀도 높은 상황 속에서 반려견 동반 활동 역시 다른 때보다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호숫가, 피크닉장 및 트랙 주변에 이용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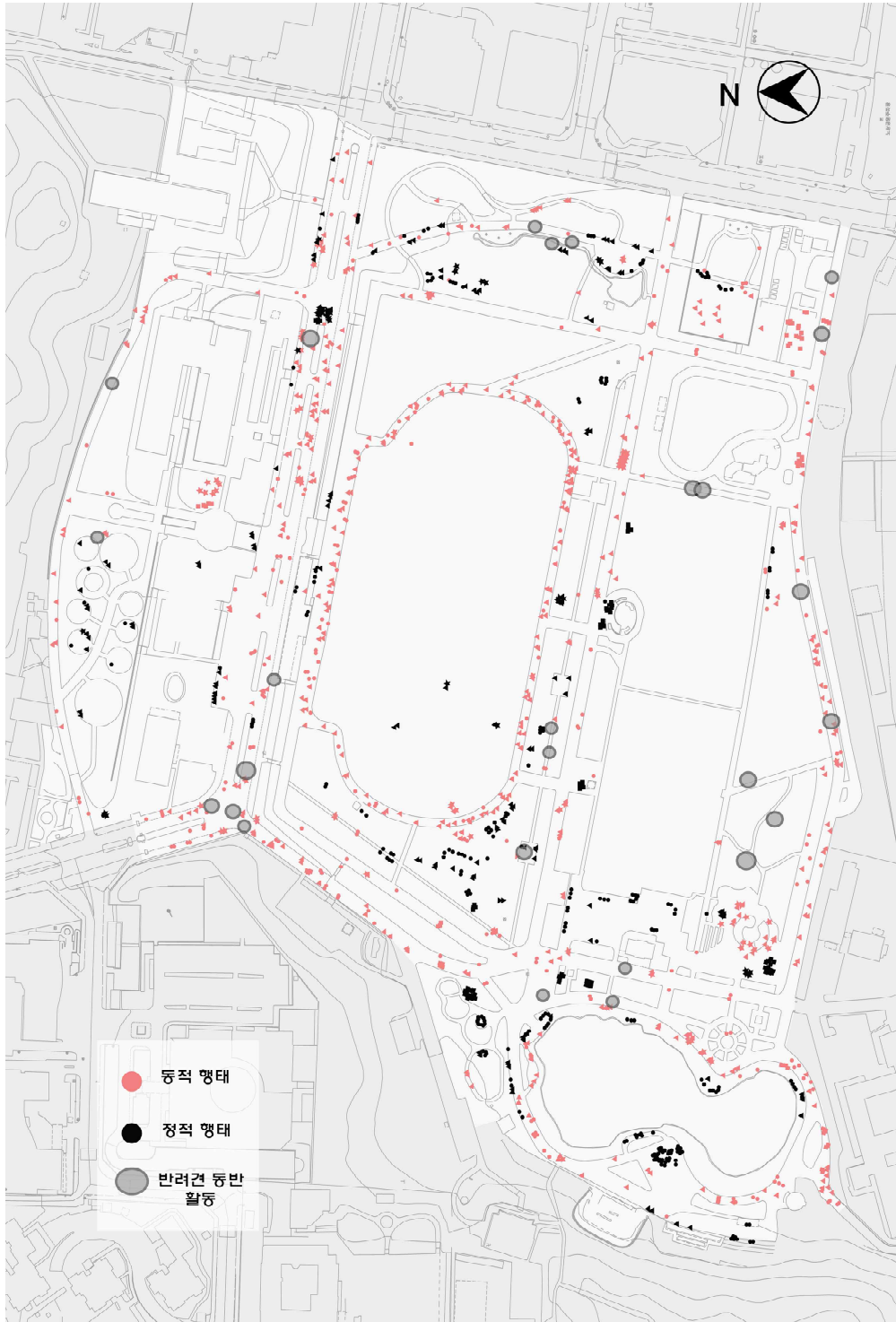
주말 저녁에도 역시 활동 위주의 이용을 보이고 있다. 피크닉장을 주변으로 반려견 동반 활동이 다른 시간대에 비해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그

림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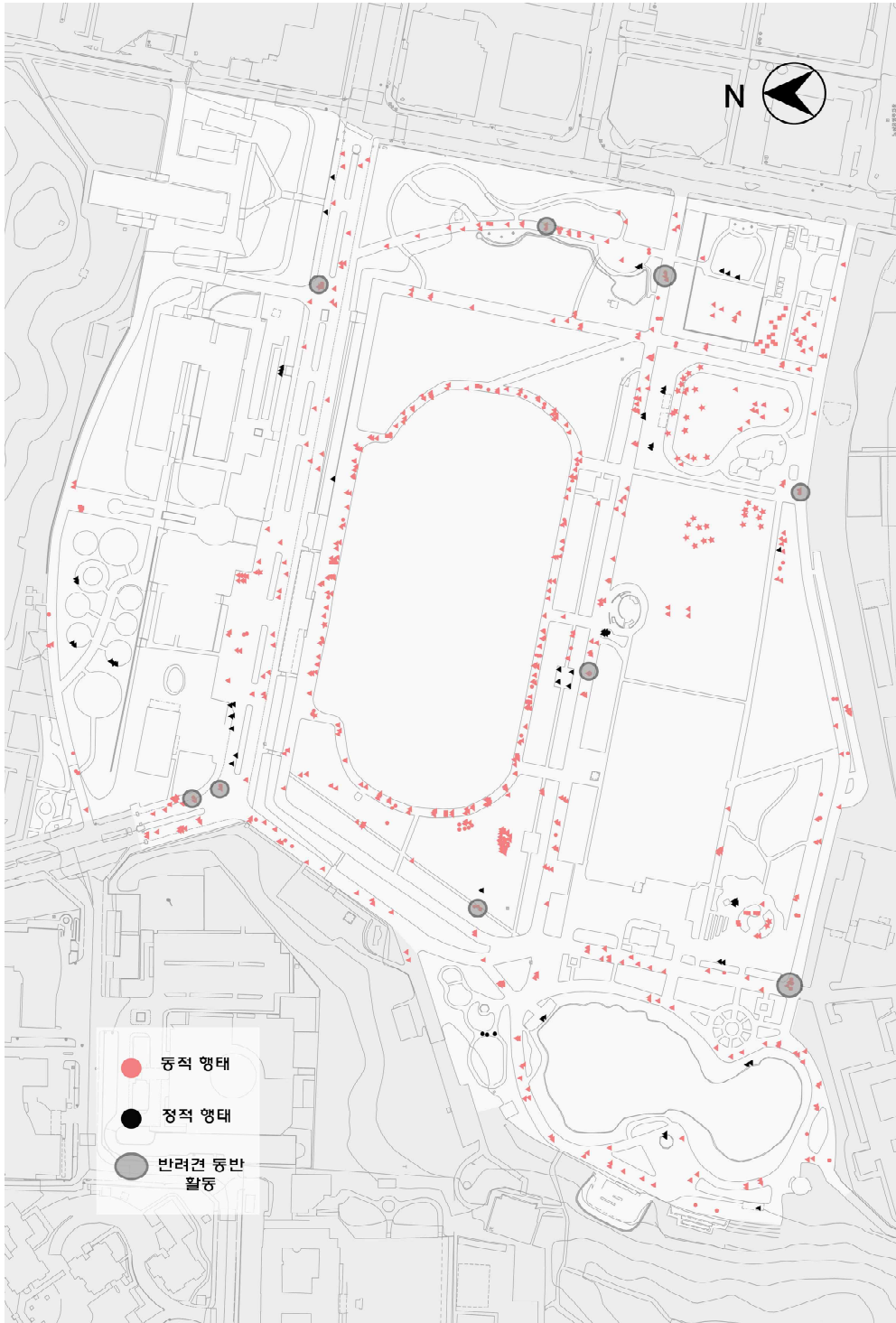
이 같은 행태 현황을 통해서 주로 오전과 저녁에는 산책이나 운동 위주의 동적 활동이 공원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오후 시간 때는 피크닉, 앉기와 같은 정적인 활동이 늘어난다. 특히 주말 오후에는 정적, 동적 행태가 모두 이용률이 높으며, 특히 잔디광장 주변에 그 이용이 집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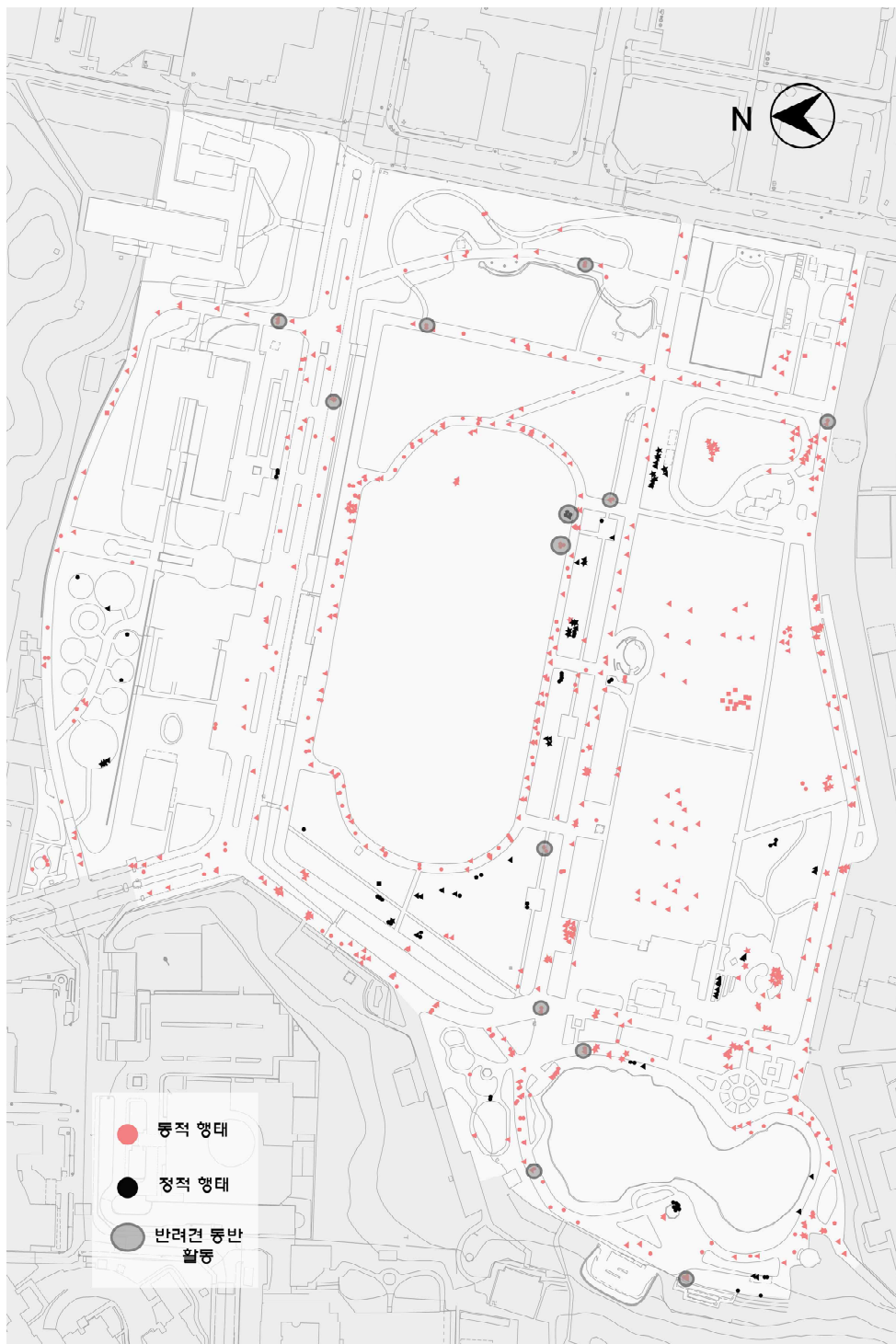
[그림 3-4] 평일 오전 이용자 행태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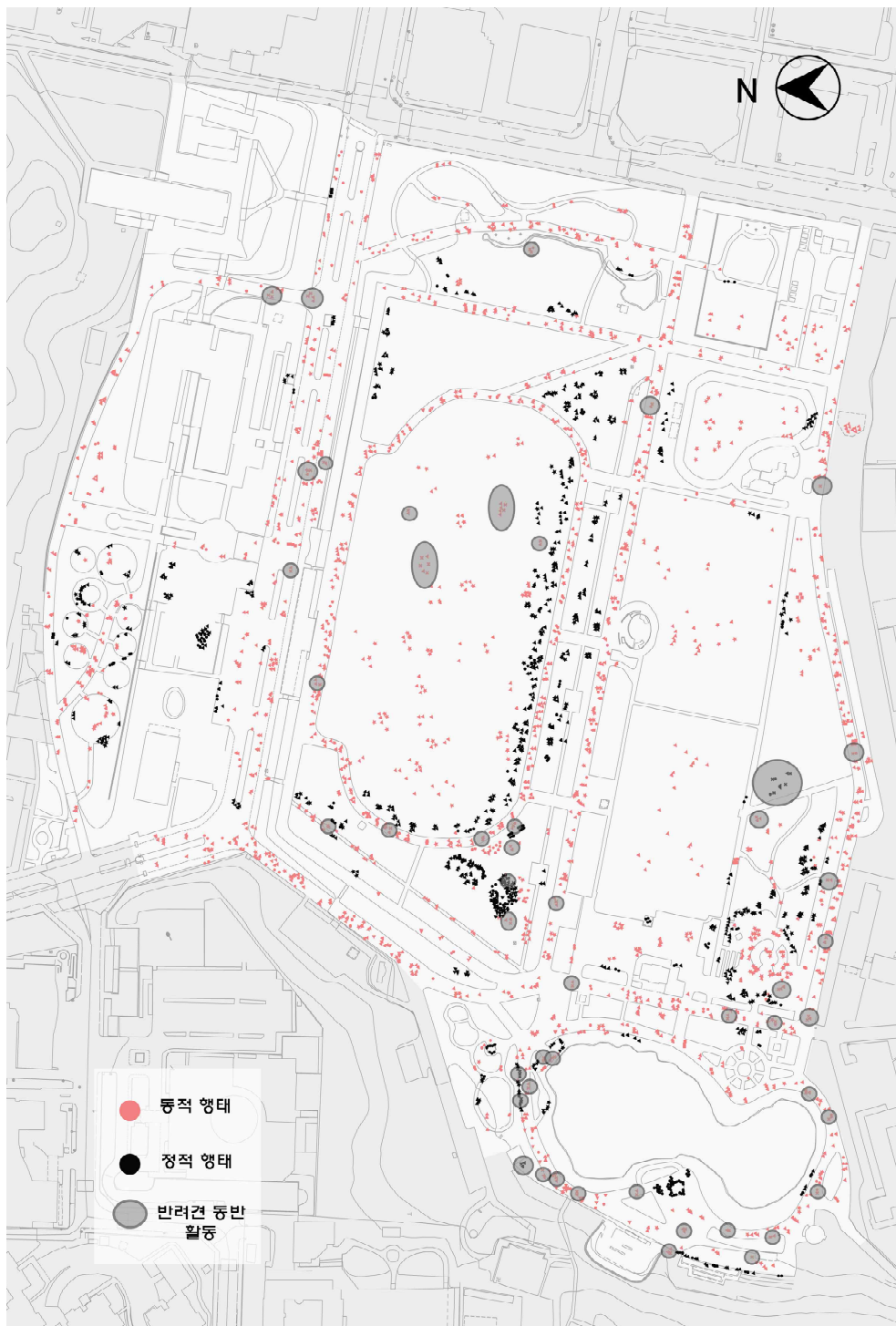
[그림 3-5] 평일 오후 이용자 행태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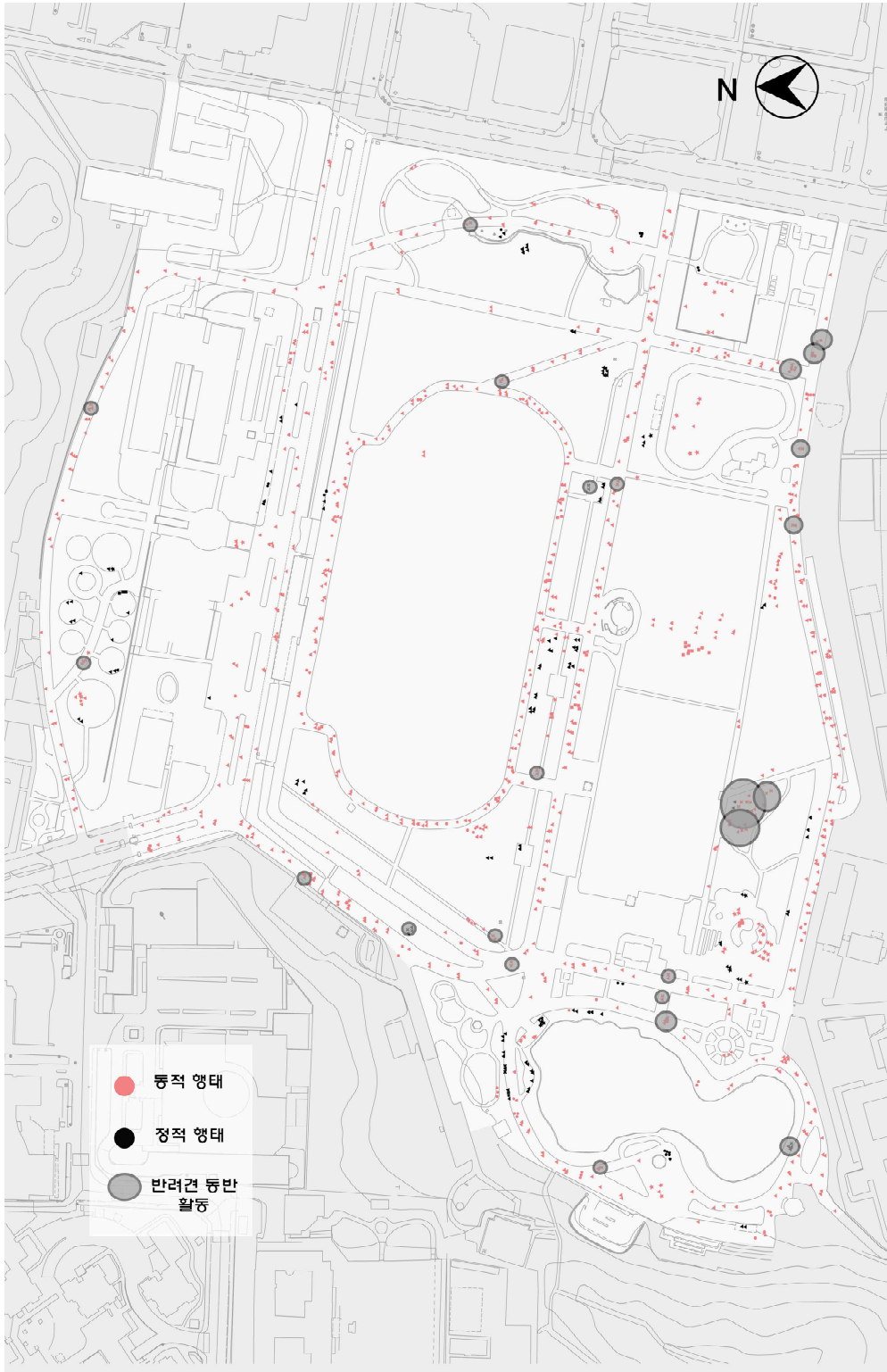
[그림 3-6] 평일 저녁 이용자 행태지도



[그림 3-7] 주말 오전 이용자 행태지도



[그림 3-8] 주말 오후 이용자 행태지도



[그림 3-9] 주말 저녁 이용자 행태지도

(2) 반려견 동반 활동자 행태 현황

공원 내 행태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반려견 동반 활동을 모두 중첩해본 결과, 주로 반려견 동반 활동자들이 이용하는 공간은 동선 부근이며, 피크닉장이나 중앙 잔디밭에서 정적인 활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이용분포는 다른 공원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공간이 겹치고 있어, 두 집단이 이용 공간이 중첩됨을 알 수 있다. [그림3-10]



[그림 3-10] 반려견 동반 활동자 행태 분포

반려견 동반 활동자들은 반려견에 의해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반려견을 통제해야만 하는 정적인 행태가 보다 적게 일어나고 있었다.

동적활동을 주로 목줄을 이용하여 반려견과 산책하거나 조깅을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그림 3-11] 목줄을 반드시 착용해야하는 제약 및 통제의 의무 때문에 반려견 동반 활동자는 반려견의 행태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그림 3-11] 반려견 동반 활동의 동적 행태

정적 활동 시에는 반려견과 벤치를 공유하는 등 공원 시설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그림 3-12] 하지만 평소 활동량이 적은 반려견의 경우에는 반려견 동반 활동자가 정적인 행태를 하더라도 동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통제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반려견의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채로 공원을 이용하는 행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림 3-13]



[그림 3-12] 반려견 동반 활동의 정적 행태



[그림 3-13] 피크닉장(강아지 동산)에서 나타나는 반려견 동반 활동

특히 많이 이용되는 장소는 피크닉장이었다. 이 장소는 반려견 동반 활동자 사이에서 ‘강아지 동산’이라 불릴 정도로 반려견 동반자들끼리 사회적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다. 평일에는 간간히 반려견 동반 활동이 나타나긴 했지만, 주말에 오후 3시 30분경에 반려견 동반 활동자들이 모이기 시작하여 반려견을 자유롭게 풀어놓는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런 행태는 저녁까지 이어지며, 여름에는 저녁 시간에, 겨울에는 일조량이 많은 오후 1~3시 사이에 주로 이런 활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³²⁾

피크닉장은 평소에는 이용율이 높지 않지만, 주말 오후에 피크닉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이용이 나타나는 공간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반려견 동반 활동자와 일반 공원 이용자들이 이 공간을 공유하게 된다. 목줄을 풀어놓은 활동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피크닉장에서 일반 공원 이용자와 반려견 동반 활동자 사이에서 긍정적인 교류나 나타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교류가 나타나기도 한다.

반려견의 이용이 많은 만큼 이 지역에는 반려견의 배변 흔적이 많이 발견되었으며, 목줄을 풀어놓는 행위 때문에 반려견이 많이 있을 때는 사람들의 이동통로까지 반려견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 일반 이용자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공간이다.

실제로 공원 내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놓는 행위는 공원 내에서 벌금을 물어야 하지만, 관리자들을 계도 수준에서 이들을 관리하고 있었다.

(3) 공원 내 반려견 동반 활동 관리 현황

공원 관리 현황 및 관리자들의 입장을 살펴보기 위해 공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하였다. [표 3-3]

32) 현장 인터뷰

[표 3-3] 관리자 인터뷰 정리

질문 내용	답변
관리 및 순찰 대상	순찰 시간 : 24시간 1시간마다 2인 1조로 관리구역 직원 순찰 공익요원들이 2시간마다 순찰. 순찰 대상 : 열매 채집, 노점상, 흡연, 반려견 목줄 및 분뇨 처리, 시설물 파기 등.
반려견 동반 활동으로 인한 민원 사항	피크닉장 주변으로 반려견 동반 활동자들이 목줄을 풀어놓음. 이로 인해 주변시설 이용자들로부터 다수의 민원 들어옴. 공원 전체적인 범위에서 반려견 동반 활동이 일어남. 중앙 잔디 및 중앙트랙은 반려견 분뇨문제로 출입을 금지함.
반려견 동반 활동 관련 시설	반려견 배변봉투함을 공원 내 설치. 반려견 전용 공간을 요구하는 민원도 있으나, 일반 이용자들의 반발 및 공간 부족으로 반려견 전용 공간을 공원 내에 설치할 계획은 아직 없음.

제 4절 Q 방법론을 활용한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인식

1.Q 방법론의 절차

(1) Q 모집단의 구성

진술문의 수집 방법은 기성적 표본 방법(ready made sample)과 자연적 표본 방법(naturalistic sample)으로 나뉘어진다. 또한 자연적 Q표본과 기성적 Q표본을 결합하여 모두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혼합 Q표본이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반려견의 등장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반려견에 대한 사회적 문제와 인식들을 미디어에서 차용하였고, 이런 인식들이 표출되고 있는 공원 내의 상황과 이용자들의 의견에서도 모집단을 차용하여, 혼합 Q 표본 방법으로 Q 모집단을 구성하였다.

(2) Q 표본의 작성

연구 대상자들은 심리적 장인 Q표본을 통하여 각자의 주관성을 표출, 전달하

고 이를 Q방법론은 과학적으로 측정한다고 할 수 있다.

추출한 Q 모집단에서 도시공원 내의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내용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 위주로 선별하였으며, 예비 테스트를 통해 부자연스럽거나 적절하지 않은 표현 등을 다듬어 총 30개의 진술문을 구성하였다. [표 3-4]

[표 3-4] 진술문 목록

공간 /시설	1	반려견과 애견인을 위한 애견운동기구가 설치된 공간이 별도로 필요하다.
	2	반려견 산책로가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3	배변봉투, 반려견 음수대 등 반려견을 위한 시설물이 필요하다.
	4	공원 내 반려견 공간의 분리는 애견인과 일반이용자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5	반려견을 위한 공간은 일반이용자와 되도록 마주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
관리	6	공원 내 반려견 관련 법에 대해서 과태료를 올려야 한다.
	7	공원 관리자들은 반려견 관련 규제를 지키도록 통제하고 있다.
	8	공원 내 반려견이 목줄 안해도 되는 시간을 정해야 한다.
	9	반려견을 위한 공간과 시설이 생긴다면 유료로 운영되어야 한다.
	10	공원 내 반려견의 분뇨가 자주 눈에 띈다.
공원 활동	11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반려견을 잘 통제한다.
	12	애견인들은 목줄을 제대로 착용시키고 분뇨를 잘 치운다.
	13	반려견은 공원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14	반려견에게 공원 산책은 필수적인 것이다.
	15	공원에서 반려견은 위협적인 존재이다.
	16	공원에서 반려견은 비위생적 존재이다.
	17	공원에서 반려견과 마주치는 것은 즐겁다.
	18	반려견은 공원에서 자유롭게 뛰어놀아야 한다.
	19	애견인들에 대한 비난은 그들의 공원 이용을 어렵게 한다.
	20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 반려견을 풀어놓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21	반려견을 위한 공간 관리는 애견인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22	반려견 활동은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3	반려견과 공원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것은 불쾌하다.
반려 견 인식	24	반려견에게 투자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이다.
	25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부족하다.
	26	우리 나라 반려견 문화의 성숙도는 낮은 편이다.
	27	반려견은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이다.
	28	반려견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이다.
	29	반려견 문화는 앞으로 더욱 성숙할 것이다.
	30	공동주택 내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3) P표본의 선정

Q 방법론에서 연구의 조사 대상자의 표본을 P 표본이라 하는데, P 표본의 선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표본의 선정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Q 방법론에서는 표본의 수가 상관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Q 방법론에서는 사람이 변인이고 항목은 표본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포괄적 연구에서는 피험자의 수는 요인을 생성하고 요인들 간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김순은, 2007; 김홍규, 2008).

본 연구의 범위는 보라매공원으로 한정되었으므로, 보라매 공원을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 반려견 동반 활동자, 공원 관리자를 P표본으로 선정하였다.³³⁾[표 3-5]

[표 3-5] P 표본

P 표본	특이 사항
반려견 활동자1	남성, 30대, 반려견(대형)2마리
반려견 활동자2	여성, 20대, 반려견(소형)3마리
반려견 활동자3	여성, 30대, 반려견(소형)1마리
반려견 활동자4	여성, 30대, 반려견(소형)2마리
반려견 활동자5	남성, 20대, 반려견(소형)1마리
반려견 활동자6	여성, 30대, 반려견(소형)1마리
반려견 활동자7	남성, 30대, 반려견(소형)1마리
반려견 활동자8	여성, 20대, 반려견(소형)1마리
반려견 활동자9	남성, 20대, 반려견(소형)1마리
반려견 활동자10	여성, 50대, 반려견(소형)2마리
반려견 활동자11	여성, 30대, 반려견(소형)1마리
반려견 활동자12	여성, 30대, 반려견(소형)1마리
반려견 활동자13	여성, 40대, 반려견(소형)1마리, 주 4회 이상 산책
반려견 활동자14	여성, 20대, 반려견(소형)1마리
반려견 활동자15	여성, 20대, 반려견(소형)1마리, 산책 거의 안시킴
반려견 활동자16	여성, 30대, 반려견(소형)1마리
일반 이용자1	남성, 30대, 운동하기 위해 공원방문
일반 이용자2	남성, 40대, 산책/운동 위해 공원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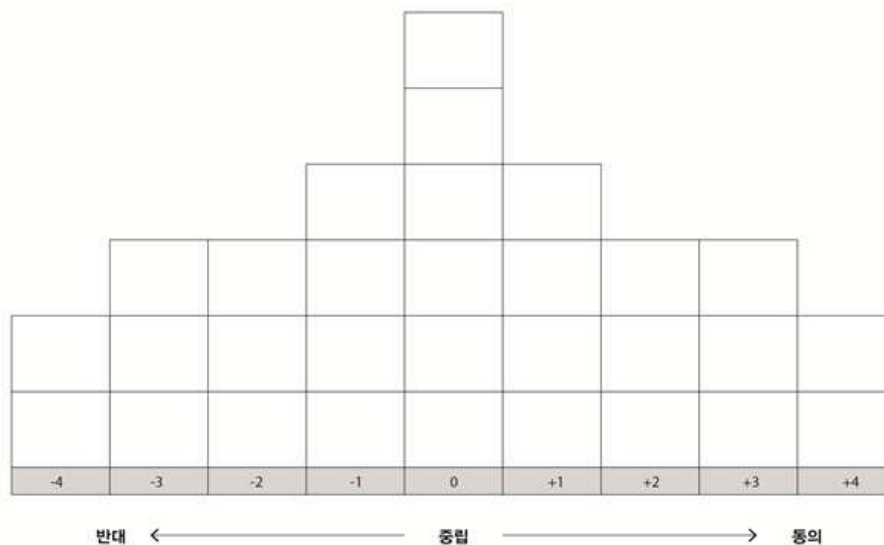
33) 조사 대상자 50명 중 유효하지 않은 값을 내타낸 10명의 자료는 제외하였다.

일반 이용자3	여성, 30대, 산책하기 위해 공원방문
일반 이용자4	여성, 20대, 산책하기 위해 공원방문
일반 이용자5	남성, 20대, 운동하기 위해 공원방문
일반 이용자6	여성, 20대, 산책하기 위해 공원방문, 다른 반려동물 사육 중
일반 이용자7	남성, 20대, 반려견 키운 경험 있음, 운동위해 공원 방문
일반 이용자8	여성, 20대, 산책하기 위해 공원방문
일반 이용자9	여성, 10대, 만남/대화 위해 공원방문, 반려견에 예민하게 반응
일반 이용자10	여성, 10대, 휴식하기 위해 공원 방문
일반 이용자11	여성, 10대, 산책/만남/대화 위해 공원 방문
일반 이용자12	여성, 10대, 반려견 키운 경험있음, 운동/만남/대화 위해 공원 방문
일반 이용자13	남성, 50대, 운동/취미생활(배드민턴)위해 공원 방문
일반 이용자14	남성, 50대, 반려견 키운 경험있음, 산책하기 위해 공원 방문
일반 이용자15	남성, 60대, 반려견 키운 경험있음, 운동하기 위해 공원 방문
일반 이용자16	남성, 10대, 운동하기 위해 공원 방문
일반 이용자17	남성, 30대, 운동하기 위해 공원 방문
일반 이용자18	남성, 40대, 운동하기 위해 공원 방문, 트랙이용
일반 이용자19	남성, 60대, 산책위해 공원 방문
공원 관리자1	남성, 50대, 공무원
공원 관리자2	남성, 40대, 공원질서유지 업무 담당 공무원
공원 관리자3	남성, 20대, 공익 요원, 공원 순찰 업무
공원 관리자4	남성, 20대, 공익 요원, 공원 순찰 업무
공원 관리자5	남성, 20대, 공익 요원, 공원 순찰 업무

(4) Q-sorting

한 응답자가 q-sample을 분류하는, 즉 각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는 과정을 말한다. 긍정, 중립, 부정으로 크게 3그룹으로 나눈 다음 긍정 진술문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것을 차례로 골라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sorting을 진행하여 중립부분에서 마무리하면 된다. 같은 방법으로 부정 진술문들 중 가장 부정하는 것을 끝으로 두고 차츰 안쪽으로 sorting을 계속하여 중립부분에서 끝내면 된다.

본 연구에서는 30개의 Q 표본을 P 표본을 분류할 수 있도록 Q 카드와 분류할 수 있는 판을 제작하였다.[그림 3-14]



[그림 3-14] Q 카드 진술판

(5)자료 처리 및 분석

통계적 처리 단계부터 Q 방법론은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동일하다. 따라서 요인분석의 원리가 그대로 Q 방법론에도 적용된다. 다만 P 표본이 변수가 된다는 점이 일반적인 요인분석과 상이하다. (김순은, 2007)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통계 소프트웨어인 SPSS ver.21을 사용하여 주성분 요인분석으로 하였고, 연관성있는 값이 나온 50명 중 40명의 P표본을 대상으로 요인 수는 72%의 누적 설명 값을 나타내는 7개로 추출되었다. 추출된 7개의 요인들의 회전 방식은 배리맥스(Varimax)를 이용하였다. 7개의 유형 중 유형 6, 7은 다른 유형과 의미가 비슷하거나 선명하게 의견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배제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총 36명 5개의 유형으로 분류 및 분석하였다. [표 3-6]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 P 표본은 반려견을 키우는 공원 이용자,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일반 공원 이용자, 공원 관리 공무원 및 공원을 순찰하는 공익요원으로 구성하였다.

[표 3-6] 회전된 성분행렬

	성분						
	1	2	3	4	5	6	7
일반이용자6	.836	.054	.246	.189	-.077	.089	-.082
일반이용자16	.826	-.404	-.113	-.072	.097	-.146	.055
반려견활동자6	.812	.084	.065	.107	.255	.123	.061
반려견활동자13	.808	-.144	-.054	-.317	-.023	-.008	.124
반려견활동자8	.788	-.121	.299	.015	.165	.213	-.169
일반이용자11	.738	-.246	.048	.211	.105	-.051	.172
반려견활동자11	.731	-.127	.512	.162	.144	.025	.001
반려견활동자15	.724	.056	.256	-.079	.066	.240	.310
반려견활동자9	.723	-.074	-.048	.132	-.068	.355	.120
반려견활동자10	.716	-.293	.055	.120	.091	.183	.317
일반이용자8	.701	-.082	-.323	.022	-.192	.374	.008
일반이용자10	.694	.091	.113	.256	.355	.070	-.024
반려견활동자3	.686	-.255	.189	-.246	.080	-.107	-.242
반려견활동자12	.671	-.350	.356	.133	-.091	.145	.051
반려견활동자15	.650	-.236	.075	.112	.270	.451	-.060
반려견활동자7	.629	-.450	.224	.094	-.127	.019	-.174
일반이용자12	.606	-.437	-.167	-.166	.359	-.149	-.175
반려견활동자4	.592	-.096	.092	.001	.265	.112	.030
반려견활동자14	.581	.133	.062	.134	.245	.033	-.201
일반이용자7	.506	-.311	-.077	-.100	.452	.258	.093
공원 관리자2	-.259	.802	-.031	-.093	-.038	-.266	-.005
공원 관리자1	-.316	.677	-.068	-.132	.247	.060	.134
일반이용자4	-.013	.606	-.205	.214	.183	-.130	-.450
일반이용자2	-.228	.605	.371	.420	.126	.158	-.093
일반이용자17	-.124	.591	.037	.503	-.068	.002	.038
일반이용자15	.254	.585	.429	-.066	.005	-.177	.332
일반이용자18	.138	-.099	.801	.305	.045	-.128	-.048
일반이용자13	.054	.412	.761	.183	.040	.059	.095
일반이용자19	.371	-.194	.724	-.075	.267	.240	.125
일반이용자9	.136	.022	.174	.745	-.090	.162	-.062
일반이용자1	.168	-.037	.056	.700	.081	-.242	.138
공원 관리자3	.323	-.102	.222	.596	.396	.071	.025
반려견활동자2	-.206	.200	.041	.583	.217	-.040	.448
공원 관리자5	.162	.192	.057	-.038	.807	.033	-.226
일반이용자3	.313	.026	-.037	.283	.674	.336	.005
일반이용자14	.041	.089	.324	.113	.647	-.026	.262
반려견활동자1	.126	.004	.094	-.112	.282	.806	.004
공원 관리자4	.423	-.196	-.048	.071	-.072	.706	-.174
일반이용자5	.006	.130	-.020	.125	-.044	-.093	.801
반려견활동자5	.421	-.311	.291	.082	.065	-.029	.506

2. 각 유형의 특성 분석

(1) 유형 1 : 자발적 참여 및 책임 촉구형

유형1에는 반려견 활동자 13명과 일반 공원 이용자 7명이 속해있다. 대부분이 반려견 활동자로 이루어진 유형이지만,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일반 이용자들의 경우 반려견을 키워본 경험이 있거나(일반이용자 7, 일반이용자 12), 다른 반려 동물을 기르거나(일반이용자 6), 애견 카페에 종사(일반 이용자 18)하거나 자주 이용하는 등, 이 그룹에 속한 이용자들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만큼이나 반려견 혹은 다른 동물을 접할 기회가 많은 편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함께 공원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진술문 20, 23). 반려견의 공원 이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진술문 13, 14) 이에 대한 부정적인 진술문에는 반대의견을 보인다(진술문 15, 16). 이 유형의 구성원이 대부분 반려견 활동자이지만, 반려견을 위한 공간 관리 측면에서 애견인들의 자발적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진술문 21), 자발적인 관리 참여에 대한 의지가 있으며, 타 반려견 활동자에게도 공원 이용에 따른 관리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반려견을 위한 공간에 대한 유료 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통해 금전적 책임에는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진술문 9).

저는 산책하곤 할 때 사람이 없는 곳으로 다녀요. 코코(반려견)는 낯선 사람들에게 잘 짖거든요. 아무리 규제를 잘 지켜도 애가 짖으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차라리 피해서 다녀요. 특히 애들한테 짖어서 부모들이 뭐라고 하죠. (중략) 그 사람들을 탓할 것도 없이 코코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니까... 이해는 되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이 있었으면 싶어요. (중략) 견주들의 자발적인 활동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견주들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 (반려견 활동자 8)

[표 3-7] 유형 1 진술문 목록

동의하는 Q 진술문		Z-score
13	반려견은 공원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1.66209
14	반려견에게 공원 산책은 필수적인 것이다	1.51108
27	반려견은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이다.	1.31076
21	반려견을 위한 공간 관리는 애견인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1.1346
3	배변봉투, 반려견 음수대 등 반려견을 위한 시설물이 필요하다.	1.09585
20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 반려견을 풀어 놓는 것은 허용 할 수 있다.	1.05414
동의하지 않는 Q 진술문		Z-score
30	공동주택 내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1.1645
23	반려견과 공원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것은 불쾌하다.	-1.39692
15	공원에서 반려견은 위협적인 존재이다.	-1.527
16	공원에서 반려견은 비위생적 존재이다.	-1.692
9	반려견을 위한 공간과 시설이 생긴다면 유료로 운영되어야 한다.	-1.8539

(2) 유형 2 : 공원 외 공간/시설 분리형

유형 2는 일반 공원 이용자 4명, 공원 관리자 2명이 해당되었다. 공원 관리자 2명은 현직 공무원이며 공원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반려견의 공원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반려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보다 반려견 동반 활동자들의 태도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진술문 26). 따라서 이들이 특히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는 항목은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규제 준수에 대한 내용이다(진술문 11, 진술문 12).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간의 분리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나(진술문 5), 이를 위한 공간 조성 및 추가적 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진술문 1, 4, 8).

인터뷰에서 반려견 운동장 같은 공간은 공원 외에 조성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특히 공원 관리자 2는 인터뷰에서 반려견 관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언급했다.

반려견 문제는 우리나라 애견인의 시민의식이 부재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올해만 과태료를 징수한 사례가 12건 정도 되요. 기본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규제조차 지키고 있지 않아서 민원도 많죠. 사람이 개를 통제하는 것은 어렵고, 공원 내의 시설 조성보다는 애견공원을 따로 조성해야죠. 지금 현재 공원에 반려견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공간도 부족하고 사람을 위한 공간도 모자르는데...(중략) 아직까지는 반려견을 키

우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는게 옳다고
생각해요. - (공원 관리자2)

[표 3-8] 유형 2 진술문 목록

동의하는 Q 진술문		Z-score
5	반려견을 위한 공간은 일반이용자와 되도록 마주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	1.96608
26	우리 나라 반려견 문화의 성숙도는 낮은 편이다.	1.72327
22	반려견 활동은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42963
동의하지 않는 Q 진술문		Z-score
18	반려견은 공원에서 자유롭게 뛰어놀아야 한다.	-1.14143
12	애견인들은 목줄을 제대로 착용시키고 분뇨를 잘 치운다.	-1.15205
8	공원 내 반려견이 목줄 안해도 되는 시간을 정해야한다.	-1.23172
4	공원 내 반려견공간의 분리는 애견인과 일반이용자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1.29471
11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반려견을 잘 통제한다.	-1.55857
1	반려견과 애견인을 위한 애견운동기구가 설치된 공간이 별도로 필요하다.	-1.57682
28	반려견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이다.	-1.86902

(3) 유형3 : 무관심형

유형3은 일반 공원 이용자 3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 그룹은 공원에서 반려견을 마주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편은 아니었다(진술문 17). 하지만 반려견에게 공원 이용이 필요하다는 진술문에 동의하고 있고,(진술문 14), 공간 및 시설 조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진술문 4). 반려견 공간이나 활동에 있어 일반 이용자와 분리해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진술문 2, 5), 이는 반려견과 함께 공원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 때문에 피해를 입은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굳이 만나서 불편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 (일반 이용자18)

반려견에게 운동을 필수죠. 실내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반려견 똥만 잘 치운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인위적으로 산책로를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 (일반 이용자 13)

현재 반려견 문화의 성숙도가 낮다고 평가하고 있지만(진술문 26), 앞으로 더

욱 성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진술문 29). 반려견 전용 공간의 자발적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진술문 21)으로 보아,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반려견 동반 활동자들의 문화 성숙의 성장과 더불어 자율성을 부여하는데 긍정적인 태도라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유형 3은 대체적으로 반려견 문화를 포용하고 공존하는데 거부감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전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규제를 지키는 것 같아요. 가끔 몰상식한 애견인도 보이긴 하는데 앞으로는 나아지겠죠. - (일반 이용자 18)

[표 3-9] 유형 3 진술문 목록

동의하는 Q 진술문		Z-score
29	반려견 문화는 앞으로 더욱 성숙할 것이다.	1.59464
4	공원 내 반려견 공간의 분리는 애견인과 일반이용자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1.43972
9	반려견을 위한 공간과 시설이 생긴다면 유료로 운영되어야 한다.	1.43783
7	공원 관리자들은 반려견 관련 규제를 지키도록 통제하고 있다.	1.4309
26	우리 나라 반려견 문화의 성숙도는 낮은 편이다.	1.36285
14	반려견에게 공원 산책은 필수적인 것이다.	1.34548
21	반려견을 위한 공간 관리는 애견인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1.15308
동의하지 않는 Q 진술문		Z-score
17	공원에서 반려견과 마주치는 것은 즐겁다.	-1.0188
5	반려견을 위한 공간은 일반이용자와 되도록 마주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	-1.18952
22	반려견 활동은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35124
20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 반려견을 풀어 놓는 것은 허용 할 수 있다.	-1.75816
2	반려견 산책로가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2.00974

(4) 유형4 : 공원 내 공간/시설 분리형

유형4에는 일반 공원 이용자 2명, 반려견 활동자 1명, 관리자 1명이 해당되었다. 이들 진술문 중 대부분은 공간과 시설 조성에 대한 의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대부분 동의하는 의견을 보인다.(진술문1, 2, 3, 4). 이는 반려견과 함께 공원 시설을 이용하기 꺼려하는 인식 때문으로 볼 수 있다(진술문 23).

반려견 활동자 2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이 같은 진술문에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벤치나 음수대 같이 함께 공유하는 시설에 한정하여 응답하였으며, 이 같은 태도는 반려견이 인간과 비슷한 대우 혹은 대

체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견에 대한 부정적 인식(진술문 28)에 비추어보아, 반려견을 인간과 동급의 존재로 바라보는데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 이러한 감정이 시설을 함께 사용함에 있어 꺼려지게 만드는 것이라 판단된다.

저도 반려견을 3마리 키우고 있지만 개를 안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만하더라도 얼마 전에 음수대에 개를 앉히고 물을 먹이는 것을 봤는데, 우리 개도 아니고 다른 개가 먹던 음수대를 제가 사용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중략)...강아지 동산에 산책하다가 종종가곤 해요. 반려견이 많이 모여 있어서 애들 사회성도 기르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반려견 운동장같은 떨어진 시설이 생기면 이런 기회가 더 많아지겠죠. - (반려견 활동자2)

[표 3-10] 유형 4 진술문 목록

동의하는 Q 진술문		Z-score
4	공원 내 반려견 공간의 분리는 애견인과 일반이용자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2.58618
2	반려견 산책로가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1.71068
3	배변봉투, 반려견 음수대 등 반려견을 위한 시설물이 필요하다.	1.40427
1	반려견과 애견인을 위한 애견운동기구가 설치된 공간이 별도로 필요하다.	1.29379
23	반려견과 공원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것은 불쾌하다.	1.1619
동의하지 않는 Q 진술문		Z-score
9	반려견을 위한 공간과 시설이 생긴다면 유료로 운영되어야 한다.	-1.04309
8	공원 내 반려견이 목줄 안해도 되는 시간을 정해야한다.	-1.70318
28	반려견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이다.	-1.7506

(5) 유형5 : 공간 분리 및 규제 강화형

이 그룹에는 일반 공원 이용자 2명과 관리자 1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반려견을 마주치거나 함께 공원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고(진술문 17), 일부 반려견에 대한 부정적인 진술문에 반대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진술문 16, 24) 반려견 동반 활동자들의 책임감 및 반려견 통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진술문 25, 11). 이는 반려견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나 공원 내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공원 행태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간을 조성하는 것(진술문 1),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진술문 6)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이는 반려견 문화의 성숙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데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진술문 29).

별로 저한테 피해를 준 적은 없지만, 공원에서 일어나는 반려견 관련 문제는 개를 키우는 사람들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것 같은데요. 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벌금을 올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 (일반 이용자 3)

[표 3-11] 유형 5 진술문 목록

동의하는 Q 진술문		Z-score
6	공원 내 반려견 관련 법에 대해서 과태료를 올려야 한다.	2.51802
25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부족하다.	1.84003
17	공원에서 반려견과 마주치는 것은 즐겁다.	1.22589
1	반려견과 애견인을 위한 애견운동기구가 설치된 공간이 별도로 필요하다.	1.14415
동의하지 않는 Q 진술문		Z-score
11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반려견을 잘 통제한다.	-1.05096
24	반려견에게 투자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이다.	-1.3409
15	공원에서 반려견은 위협적인 존재이다.	-1.40697
23	반려견과 공원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것은 불쾌하다.	-1.54249
29	반려견 문화는 앞으로 더욱 성숙할 것이다.	-2.04271

3.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각 유형간 특성은 현재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따라 반려견 동반 활동의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 방향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서 현재 공원 내에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갈등의 원인

반려견 동반 활동의 현황에 대해서 반려견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유형1과 개인적으로 반려견과 시설을 공유하는데 부정적인 유형 4를 제외하고,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갈등의 원인을 반려견 문화의 성숙도 및 반려견 동반 활동자의 규제 준수 수준 등 반려견 동반 활동자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반면에, 유형 1은 반려견의 공원 이용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 반

려건을 위한 시설의 필요성과 반려견이 자유롭게 놀만한 공간에 대한 요구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공원에서 그들의 욕구가 충분히 수용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유형4의 경우에도 반려견과 되도록 별도로 이용하고 싶어하는 시설의 구성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도 역시 공원 내에서 반려견 동반 활동을 지원할만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갈등의 원인은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반려견 동반 활동자들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줄만한 기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2)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문제 해결 방향 (자발적 참여 vs 시설설치 vs 규제의 강화)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현 상황에 대해 대부분의 유형들이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해결 방향에 대해서는 반려견 및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인식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려견 동반 활동자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자발적인 참여에 대한 의견부터 일정 공간 및 시설을 설치하여 그들의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강제적인 규제의 강화를 통한 문제 해결까지 세가지 방향으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해서 우호적인 혹은 무관심한 그룹(유형1, 유형3)은 반려견 동반 활동자들이 자발적 참여를 촉구하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반려견이나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해 부정적 입장인 그룹은 일반 이용자와 마주치지 않는 공간을 따로 조성하자는 의견을 보이고 있었으며, 반려견에게는 우호적이거나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유형 5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올리는 등의 규제의 강화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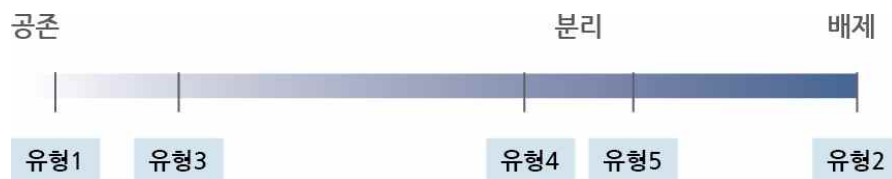


[그림 3-15] 유형별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문제 해결 방향

(3) 공원 내 반려견 동반 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에 대한 의견

모든 유형에서 반려견 동반 활동을 위한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공원 내 시설로서도 하지만 조성 이유 및 조성 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공간 조성을 원하는 목적 차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반려견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과 반려견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 별도의 제한된 공간을 조성하길 원하는 목적으로 나눌 수 있다.

유형별로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보면, 반려견과의 공존에 찬성하는 태도를 보인 유형은 유형1, 유형3이 있다.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공원 내 공간의 분리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는 집단은 유형4와 유형5가 있으며, 유형2는 공원 외에 공간을 조성해서 반려견 동반 활동을 공원 내에서 배제시키자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6] 유형별 공원 내 반려견 동반 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에 대한 의견

이 같은 상황을 이용 주체별로 살펴보면, 반려견 동반 활동자중 13명이 공존에 대한 의견에, 1명이 분리에 대한 의견에 동의했다. 일반 공원 이용자 중 10명이 공존에 대한 의견에, 4명이 분리에 대한 의견에, 또 다른 4명에 배제에 대한 의견

에 동의했다. 공원 내 관리자들도 분리에 대한 의견에 2명, 배제에 대한 의견에 2명이 동의하고 있다.

[표 3-12]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이용 주체별 의견 분포

	공존	분리	배제
반려견 동반 활동자	13	1	0
일반 공원 이용자	10	4	4
공원 관리자	0	2	2

위의 결과로 보아, 반려견 동반 활동자들은 대체적으로 반려견 동반 활동을 공원 내 활동으로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지금 보다 더 반려견에게 관대한 시선을 바라고 있다. 일반 공원 이용자의 경우에도 공존하고자하는 의견에 과반수 이상 동의하고 있으며, 반려견을 공원 내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공원 관리자의 경우에는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해서 공원에서 분리되거나 공원 외에 조성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주장은 공원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현재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통제를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고, 이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 단순히 공간의 분리를 주장하는 것은 관리자로서 현재 공원 내 반려견 동반 활동의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제 5절 소결 : 갈등 해결의 실마리

본 연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려견 동반 활동의 실태와 인식에 대해 살펴 보았다. 빠르게 정착된 반려견 문화 때문에 반려견에 대한 다양한 인식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

미디어 상에서는 반려견과 그 문화에 대한 인식이나 반응들이 조금씩 변화하

고 있었으나, 여전히 공원 내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었다. 하지만 공공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시점이다.

실제 공원에서는 반려견 활동자들은 반려견을 산책이나 운동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원을 이용하고 있어, 주로 동적인 활동이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로 동선을 중심으로 공원을 이용하고 있었다. 반려견 활동을 위한 시설이나 공간의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Q 방법론을 통해 살펴본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갈등 관계의 원인은 반려견 동반 활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데 있다. 반려견 동반 활동의 문제들은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반 시설의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규제 강화 및 자발적 참여에 있어서도 반려견 동반 활동의 우호도에 따라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공원 이용 주체별로 살펴보면, 반려견 동반 활동자는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해 대체적으로 우호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공원 이용자들도 반려견에 그들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의견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었다. 반면에 공원 관리자들은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앞으로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인식을 우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반려견 동반 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반려견 전용 공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문제점은 이용 주체간의 갈등 양상을 좁히기 어려운데 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들을 살펴보았다. 첫째, 공공에서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반려견 전용 공간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이에 대한 반려견 동반 활동자 및 일반 공원이용자들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반려견 동반 활동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표 3-13]

[표 3-13] 갈등 해결의 가능성

갈등 해결의 가능성
1. 공공에서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문제 인지 및 해결 의지
2. 반려견 전용 공간에 대한 반려견 동반 활동자 및 일반 공원 이용자의 필요성 인식
3. 반려견 동반 활동자들의 자발적 참여 의지

도시 공원 내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인식의 차이 때문이다. 이 같은 갈등 관계간의 인식 차이를 줄이는 것은 앞서 밝혀낸 갈등 해결의 가능성을 통해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4장에서는 이 같은 공원에서의 실태와 이용자 및 관리자 간의 관계의 조정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갈등 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4장 도시 공원 내 반려견 동반 활동으로 인한 갈등 완화 방안

제 1절 프로그램적 방안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갈등은 주로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출발한다. 이전부터 지속되어온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현재 상황이 많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적으로 남아있다.

이 같은 인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반려견 동반 활동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의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 기대 된다. 반려견 동반자들의 공원 봉사 단체를 조직하고 이들 봉사단체가 공원 관리에 기여함으로써 자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에 애착을 가지고, 다른 공원 이용자 및 공원 관리자와의 소통을 통해 반려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반려견 활동자간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 활성화의 효과도 기대 할 수 있다.

1. 반려견 위반 행위 단속 및 청소 봉사

공원 내에서 반려견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황에 비추어 보아 반려견 동반 활동자들이 자원봉사단을 꾸려 직접 반려견 동반 활동을 단속한다. 이는 반려견 동반 활동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며, 서로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반려견 동반 활동자들끼리 반려견 봉사단을 통

해 단속행위 및 반려견 분노관련 청소 봉사단을 꾸린다.

후에 반려견 놀이터 같은 시설이 생긴다면, 이에 대한 유지관리 또한 직접 이들이 가꾸어, 서로에 대한 감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적법한 공원 이용이 장려될 것이며, 이들 스스로 그들의 공간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청소 및 관리하고, 자발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애착심을 형성하고 서로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2. 반려견과 만남의 장

반려견이 인간에게 주는 정서적인 효과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것을 넘어서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반려견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를 일반 이용자들에게도 체험할 수 있도록 반려견과 타 이용자들이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이는 반려견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직접 반려견을 만남으로서 반려견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일반 사람들에게 실제로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산책을 시키는 등 잠시나마 반려견 동반 활동자의 입장을 경험해 보게 한다. 또한 반려견이 좋아하는 행동과 싫어하는 행동 등 그들의 행동 특성을 교육하여 반려견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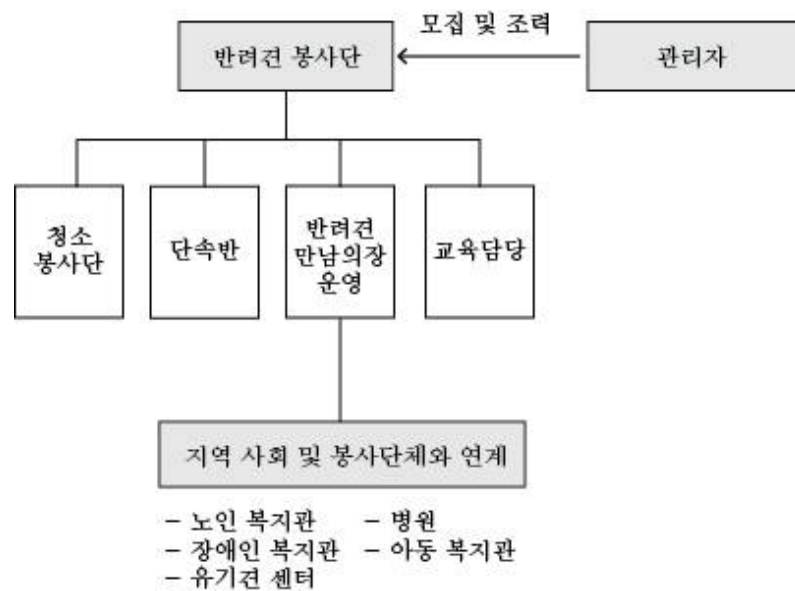
더 나아가 지역사회 봉사단체 및 복지시설과의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2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반려견 동반 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보라매공원 근처에 있는 병원, 노인 복지관, 아동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을 대상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반려견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를 통해 프로그램 대상자들에게 반려견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같은 프로그램들은 유기견센터 및 동물 보호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반려견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기견 처리 문제

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유기견과 일반 시민들과의 잦은 교류를 통해 유기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 된다.

[표 4-1] 공원 내 반려견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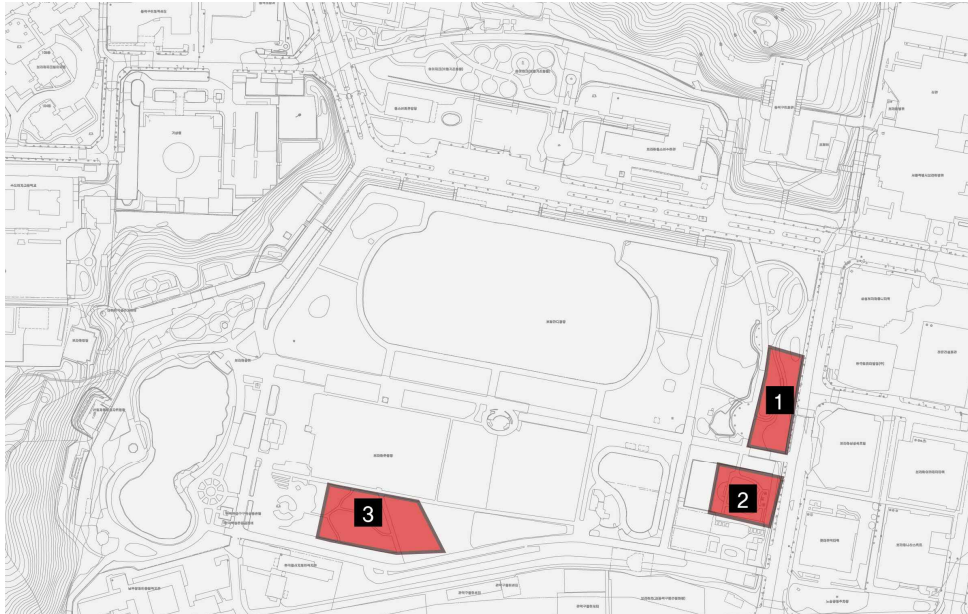
프로그램 명	내용	대상
반려견 키우기에 대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려견 키우기 및 훈련법에 대한 정보 교환 공원에서의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매너교육 	반려견 동반 활동자
반려견과 친숙해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려견 산책 체험 반려견의 행동특성 배우기 	공원 이용자
반려견과 함께하는 힐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려견과 산책을 통해 신체적, 정서적 효과 반려견과 교감하기 반려견과 정기적 만남 	노인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병원



[그림 4-1] 반려견 봉사단 프로그램 운영도

제 2절 물리적 방안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해서 공간의 분리나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일반이용자와 반려견 활동자 모두에게서 나타났다. 그들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치한 견해를 보였지만, 조성 방식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일반 이용자들은 반려견 동반 활동은 사람이 많이 많은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주로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반려견 동반자들은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집단도 있었다. 따라서 다소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접근이 용이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접촉정도가 차이가 나는 세 곳의 후보지를 선별하였다.



[그림 4-2] 후보지 선정

1. 후보지 1

현재 산책로로 조성되어 있는 공간이며, 공원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진입부와 가까워, 동쪽 출입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외곽에 위치해 공원 중심부의 이용자와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로와 산책로에 인접해있어,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으며 차도에

접해있기 때문에 차량 소음 등으로 인해 반려견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주거지 및 상가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소음 문제에 주의해야한다. 이는 반려견 전용 공간에 시간적 제한 및 기능식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3] 후보지 1 현재 모습

산책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반려견이 산책로로 뛰쳐나가지 않도록 주변으로 이중펜스를 두르고, 반려견의 통제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공원 외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별도로 입장할 수 있는 입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2. 후보지 2

후보지 1과 마찬가지로 도로에 인접해있으나, 다소 경사가 있어, 위요감을 준다. 주변에 족구장, 농구장 등이 위치해 있어 운동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통행하는 사람이 적은 편이다. 현재는 작은 휴식공간처럼 이용되고 있으나, 이용률이 높지 않으며, 후보지 중 다른 공원 이용자와 마주칠 가능성이 가장 적은 공간이다.



[그림 4-4] 후보지 2 현재 모습

체육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마찰이 없도록 펜스를 설치하되, 공 같은 것이 넘어오지 않도록 보다 높게 펜스를 둘러야 한다.



[그림 4-5] 후보지1, 후보지2의 애견 운동장 예상 이미지

3. 후보지 3

어린이 놀이터 옆에 위치해 있어, 주말에는 피크닉을 즐기기 위한 가족 단위의 이용객이 많이 찾는 공간이며, 현재 반려견 동반자들 사이에는 ‘강아지 동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공간이다.



[그림 4-6] 후보지 3 현재 모습

후보지 중 다른 이용자와 가장 자주 마주치게 되는 공간이다. 평소 이용자는 많지 않으나, 주말에 특히 이용자가 증가하며, 반려견 동반 활동자와의 갈등이 가장 빈번한 곳이다.

다른 공원 이용자와 자주 마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서 제시한 프로그램적 방안들을 후보지3에서 다른 공원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제 3절 제도적 방안

1. 반려견 전용 공간의 공원 시설 법제화

갈등 완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반려견 전용 공간이 공원 내 보급화를 위해서 반려견 전용 공간의 합법화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법적인 공원 시설에는 반려견 전용 공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원 내 설치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반려견 전용 공간의 보급화 이전에 공원 시설로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이후에 반려견 전용 공간에서 보다 쾌적한 이용을 위해서 반려견 및 시설 이용자의 행태를 고려하여 설계 기준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 4-2] 시설 설치 및 설계 기준의 예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000000㎡ 이상의 공원에 0000㎡ 반려견 전용 시설 1개소 이상 설치.³⁴⁾② 대형견 및 소형견 공간의 분리 권고.③ 시설의 입구는 이중문 설치④ 중소형견, 대형견의 공간을 따로 조성⑤ 경계부의 펜스는 180cm 이상으로 하고, 관목으로 둘러 차폐한다.⑥ 반려견의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바닥포장⑦ 반려견 음수대, 배변봉투함, 반려견 세족시설, 애견 운동시설, 벤치 등의 시설 설치를 권고 |
|--|

2. 반려견 등록 및 올바른 교육과 홍보

반려견에 대한 공원 내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는 반려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반려견 동반자들에게는 반려견 에티켓의 필요성과 반려견 훈련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공원 이용 시 반려견 동반 활동자 스스로 반려견을 통제하도록 한다.

2013년부터 국내에서도 반려견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다. 반려견 등록과 더불어 반려견 동반 활동자로서 책임감 및 에티켓을 숙지시키기 위해서 반려견 등록시 의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또한 반려견 전용 공간 이용 시 등록된 반려견만을 이용하게 하는 등 반려견 등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34) 반려견의 수와 분포에 따라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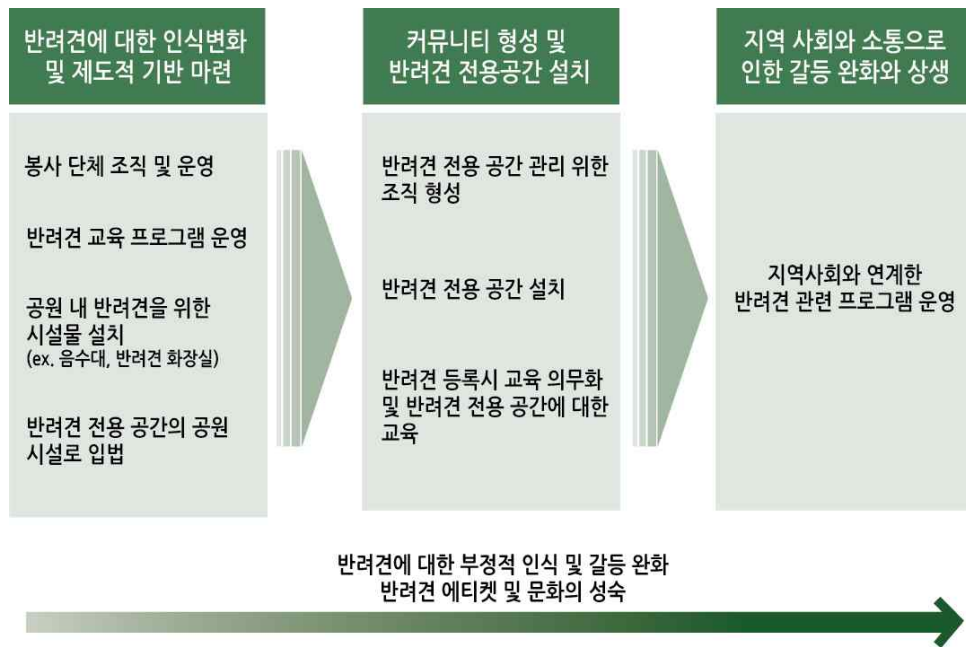
제 4절 갈등 완화 방안의 도입 단계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인식 차이 및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적, 물리적, 제도적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이 같은 방안들은 순차적으로 공원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시한 방안들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도입해 나가야 할지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 단계로, 자발적 참여 및 제도적 기반이 선행 되어야 한다. 따라서 반려견 동반 활동자들의 공원 내 봉사단체를 조직하고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감시 및 관리활동을 일임한다. 이들은 반려견 관련 교육도 함께 병행하면서 공원 내 반려견 활동자들의 교육 및 커뮤니티 형성에 기반을 만들어 나간다. 또한 앞으로 반려견 전용공간을 공원 시설로 법제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반려견 등록제와 더불어 반려견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도록 하여 반려견을 키우기 시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반려견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한다.

두 번째 단계로, 반려견 전용 공간 도입 및 인식의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반려견 전용 공간에 대한 위치 및 규모는 공원 이용자들의 투표로 진행한다. 공간의 설치 후 반려견 동반 활동자들이 주축이 되어 반려견 전용 공간을 관리하면서 반려견 동반 활동자끼리의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 사회의 복지시설 및 유기견 센터와의 연계를 통해서 앞서 제시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단계로, 이 같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반려견 동반 활동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기여하는 중심단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인식도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원 내에서 반려견의 존재가 ‘갈등’의 의미가 아닌 ‘상생’의 의미로 변화하면서 도시 내 반려견 동반 활동이 다른 여타 여가 활동과 마찬가지로 공원 내의 정당한 여가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도시 내 반려견 관련 분쟁 및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7]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갈등 완화 방안의 단계적 적용

제5장 결론

국내의 여가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생활권 여가 공간에서 여가 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났고, 특히 그 활동은 도시 공원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 공원에서는 여러 주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 간의 갈등을 피할 수 없다.

특히 도시 내 반려견의 증가와 함께 반려견과 함께하는 여가 활동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 같은 활동을 주로 도시 공원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기반시설이나 인식의 부재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빠르게 성장한 반려견 산업에 비해 성숙하지 못한 반려견 문화와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온 식견문화로 인해 여러 가지 인식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도시 공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을 통해 갈등완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분석을 위해 미디어 분석, 현장 조사, Q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미디어 분석을 통해 사회 전반적인 반려견에 대한 사회적 흐름 및 인식을 수집하였고, 이를 통해, ‘애완’에서 ‘반려’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인식과 소통의 창으로서 반려견의 의미를 읽어낼 수 있었다. 또한 반려견 문제에 대해 공공에서도 관심을 갖고 개입하는 현상을 통해 반려견이 도시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여전히 제기 되고 있는 미성숙한 반려견 문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공원 내에서 반려견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 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현재 일반 이용자 및 반려견 동반 활동의 이용 빈도가 많

은 곳과 적은 곳을 분류하였고, 특징적인 공간들을 도출해 내고,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는지 분석하였다.

이에 나온 결과를 토대로 Q 진술문을 구성하여 Q 방법론을 통해 반려견 동반 활동을 둘러싼 공원 주체들의 인식 유형 5가지를 도출하였다. 유형 1은 ‘자발적 참여 및 책임 촉구형’으로 평소 반려견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자발적인 참여 의지가 있었다. 이들은 다른 반려견 동반 활동자에게도 공원 이용에 따른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유형 2는 ‘공원 외 공간/시설 분리형’이다. 반려견의 공원 내 활동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공원 외에 조성하기를 주장한다. 유형 3은 ‘무관심형’으로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해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는 집단이나, 반려견의 공원 이용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반려견 문화에 대해서도 미성숙하다고 인식한다. 유형 4는 ‘공원 내 공간/시설 분리형’으로 공간 및 시설의 조성에 강하게 동의하고 있으며, 이는 반려견과 공원 내의 시설이나 공간을 공유하고 싶지 않은데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유형 5는 ‘공간 분리 및 규제 강화형’으로 반려견 동반 활동자들의 규제 준수 수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공간 분리와 함께 규제를 강화시키는 것에도 동의하고 있다.

이들의 유형 도출을 통해 공원 내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갈등의 원인을 반려견 동반 활동자의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하자는 의견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바뀌나가자는 인식이 공존하고 있었다. 주로 규제를 강화하자는 의견은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그룹에서, 자발적인 참여에 동의하는 그룹은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태도가 대체로 우호적이었다.

대다수의 유형에서 반려견 전용 공간 설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그 조성 방식에 대해 인식 간의 차이가 있었다. 공원 내 시설로서 인정은 하나, 강하게 분리를 주장하는 유형은 대부분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해 부정적 태도

를 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원 내 여러 가지 인식이 공존하는 현재 상황에서 갈등 완화를 위해서는 인식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 따라서, 앞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반려견 활동의 갈등 완화 방안을 프로그램적, 물리적, 제도적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프로그램적으로는 반려견 동반 활동에 인식과 의지의 변화를 위해 반려견 활동자들이 봉사단체를 조직하여 직접 반려견 활동을 단속하고, 독거노인과 장애인, 어린이들과 반려견을 만나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반려견의 정서적, 사회적 긍정적인 효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물리적으로는 이용 주체들이 시설과 공간의 분리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용행태 분석을 기반으로 반려견 전용공간을 제시하였다.

제도적으로는 반려견 전용 시설을 공원 시설의 하나로 포함시키며, 반려견 등록제 실시 후 반려견에 대한 바른 이해 및 책임감 고취를 위한 교육 이수율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방안들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첫 번째 단계로, 반려견 동반 활동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두 번째 단계로, 반려견 관련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공원 내 반려견 전용 시설을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꾀한다. 도시 내 반려견이 더 이상 갈등의 원인이 아닌 도시에서 새로운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며, 유기견의 활용, 반려견 소유자들의 의식 향상 등을 통해 도시 내 반려견 관리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제시된 방안들을 실제로 적용하였을 때 공원 이용주체들과의 의견 수렴 및 보완 단계의 연구의 부재로 실제 제시된 갈등 완화 방안을 적용 시 얻을 수 있는 효과들에 대한 검증이 배제되었다는 것에 그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보라매공원에 한정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모든 공원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도시 공원 내에서 문제시 되었던 반려견 동반 활동에 대한 긍정적 실마리를 찾아 도시 공원에서 마주칠 수 있는 반려견으로 인한 여가 갈등을 여가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였다는 데 있다.

■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강준모(2012), 한국 지역통화제도 운영자들의 인식 유형 연구 : q방법론을 활용하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 김개천, 김범중(2003), “이용자 행태 특성에 의한 공용공간의 디자인 프로세스 연구”, 『디자인학 연구』 17(1): 89-98
- 김순운(2010), “Q방법론의 이론과 철학”,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4): 1-25
- 김미향(2006), “현대여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여가 교육의 적용”, 『한국체육학회지』 45(3): 401-9
- 김선아(2005), 애완동물과 공생하는 주거계획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세영(2013), 반려견 소유와 외로움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영재(2008), “대학생 여가동기척도(LMS-A)타당화 검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2(2): 1217-26
- 김지혜(2010), 한강시민공원의 자전거이용자와 도보산책자의 레저갈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철휘(2006), 스키와 스노보드 참여자사이의 레크리에이션 갈등에 관한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흥규(1992), “주관성(Subjectivity) 연구를 위한 Q방법론의 이해”, 『간호학논문집』 6(1): 1-11
- 남순예(2011), “유기체 철학의 관점에서 동물에 대한 고찰”, 『철학논총』 64: 201-20
- 문영희, 김효정(2011), “반려동물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고찰”,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7: 455-77
- 박경란(2009), “예비노년층의 여가활동에 따른 여가만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8(2): 287-300
- 박수정(1996), 수상 스포츠 참여자의 종목에 따른 참여동기 및 참여만족도의 차이 : 수상스키, 윈드서핑, 스킨스쿠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종구 외 2인(2007), “도보산책자와 ATV이용자 간의 레저갈등 유발요인에 대한 연구”, 『관광학 연구』 32(4): 321-42
- _____, 조태영(2008), “스키어와 스노우보더 간 여가갈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32(3): 297-317
- _____, 박종선(2009), “경주 보문단지 산책로의 레크리에이션 갈등, 극복행동, 규제방안”, 『경주연구』 18(1): 72-92
- 박용선(2007), 대학교 배드민턴 동아리 참가자의 참가동기와 여가만족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성영신 외 2인(1996), “여가의 심리적 의미”,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9(2): 17-40
- 신연호(2007), 반려동물 문화산업과 교육과정 분석, 공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오상훈(2005), “도시와 농어촌의 여가활동 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관광레저연구』, 17(1): 7-23
- 이강원(2010), 애견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서윤(2009), 현대 한국사회에서 ‘애완동물’의 사회학적 의미,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해연(2013), 반려견의 생활환경이 비만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형숙(2009), “공공시설로서 공원 내 도그런에 관한 연구 : 동경 도시공원의 도그런 사례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0(2): 139-52
- _____(2010), “도시공원 이용자들의 애견전용공간계획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10(2): 49-55
- 이은희 외 3인(2011), “반려동물 경험 유무, 애호도와 대학생의 사회성 및 정서지능 간의 관계”, 『부모교육연구』 8(2): 53-73
- 임수희(2005), 애견공원 계획모형 개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은혜(2013), 살아있는 쓰레기, 유기동물의 보호시스템 실태와 개선방향 : 대구광역시 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전미리(2011), 한강시민공원 여가참여자 간 여가갈등 인식 연구 : 산책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상규, 김용구(2007), “애견을 통한 치료프로그램이 수용자의 인성에 미치는 효과 : 천

- 안소년교도소 수용자를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10: 13~38
- 조중현(2013), 활동가들의 경험을 통해 본 동물권운동의 의미변화 과정,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우진(2005), “스키어와 스노우보더의 여가 갈등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4(3): 735-43

[국외 문헌]

- Brown, S.G and Rhodes, R.E.(2006) "Relationships among dog ownership and leisure-time walking in western canadian adult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0: 131-6
- Coleman, K.J et al.(2008) "Physical activity, weight status, and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of dog walkers." *Preventive medicine* 47(3): 309-12
- Cutt H.E. et al.(2008) "Barriers and motivators for owners walking their dog: results from qualitative research", *Health Promotion Journal of Australia*, 19(2): 118-24
- Ewert, A. W, Dieser, R. B, & Voighgt, T.(1999), Conflict and the recreational experience, In E. L. Jackson & T. L. Burton (eds.), *Leisure studies: Prospect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State College, PA: Venture Publishing, College State Pennsylvania.
- Jackson, E.L. and Wong, R.L.(1982), Perceived conflict between urban cross-country skiers and snowmobilers in Alberta.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4 : pp.47-62
- Jacob, G. and Schreyer, R.(1980), "Conflict in outdoor recreation : a theoretical perspectiv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 368-80
- Lee.H.S.(2007), "A study of use pattern, user satisfaction and willingness to pay for off-leash dog parks : post-occupancy evaluations of four dog parks in Texas and Florida", Ph.D. Dissertation. Texas A&M University.
- _____ et al.(2009), "Evaluation of off-leash dog parks in Texas and Florida : a study of use patterns, user satisfaction, and perception",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92: 314-24

McNicholas, J. and Collis, G.(2000), "Dogs as catalysts for social interactions: Robustness of the effect",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91(1), 61-70

Van Raaij(1987), "Expectation, actual experience and satisfac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14: 141-55

Wood, L., Giles-Corti, B.,(2005), "The pet connection: pets as a conduit for social capital?" *Social Science and Medicine* 61 : 1159-73

Zasloff, R. L. and Kidd, A. H.(1994), "Loneliness and pet ownership among single women", *Psychological Reports*, 75: 747-52

[단행본]

김순은(2007), 『Q방법론과 사회과학』, 도서출판 금정

김현수, 원유미(2000), 『Q방법론』, 교육과학사

김홍규(2008), 『Q방법론』, 커뮤니케이션 북스

김효정(2007), 『여가공간의 정책적 유형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노용구(2001), 『여가학』, 대경북스

이철원(2002), 『현대 여가학』, 대한미디어

윤주(2009), 『생활권 공공공간에서의 여가활동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James Serpell, *In Company of Animals : A Study of Human-Animal Relationship*,
윤영애(역)(2003) 『동물, 인간의 동반자』, 들녘

Manning, R. E.(1999) 『In Studies in Outdoor Recreation: Search and Research for Satisfaction, Second Edition』, Corvallis: Oregon State University Press.

Moore Margaret C., *Manual of Veterinary Nursing*, 박우대 외 9인(역)(2005) 『수의 내과간호학』, 한진

[보고서 및 연속간행물]

농수산검역검사본부(2012), 『201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결과』

농림수산식품부(2011), 『유기동물 보호·관리 강화방안 연구』

배의철(2012), “동물학대 사례를 통해 본 동물보호법 개정의 필요성”,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녹색당+,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황명철, 김태성(2013),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농업경제연구소

Batch, E. et al(2001), 『The Case for Space: Expanding Recreational Opportunities for Dog Owners and Their Pets. Retrieved September』

Harlock Jackson Ltd.(1995), 『Public Open Space and Dogs: A Design and Management Guide for Open Space Professional and Local Government』 A Report for Petcare Information & Advisory Service, Australia

Krohe, James Jr.(2005), “Who let the dogs out?” 『Planning』 (2005년 2월)

[기사]

구가인 “[애견인 톡톡]“반려견등록제 모르는 사람 많아”...“몸속 전자칩 부작용도 걱정돼” 『동아일보』 (2013년 4월 5일)

김리선 “애완동물 한땀 한땀 명품 입는다” 『노컷뉴스』 (2012년 11월 22일)

김상길 “애견과 기아” 『국민일보』 (2005년 6월 13일)

김여란 “‘반려견 놀이터’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생긴다”, 『경향신문』 (2013년 5월 13일)

김정은, 강진규 “반려동물 전성시대... 유모차로 백화점가고 주치의 상담도” 『한국경제』 (2013년 10월 25일)

나희수 “가족으로 대우받고 사람처럼 사는 애완동물” 『내일신문』 (2011년 3월 7일)

박봄이 “모든 애견인이 ‘개퐁녀’는 아닙니다” 『오마이뉴스』 (2005년 7월 25일)

박제희 “인천대공원 애완견 출입금지 논란” 『동아일보』 (2003년 8월 10일)

백민경, 정현용, 이민영 “또 다른 가족, 애완동물” 『서울신문』 (2010년 7월 28일)

서정훈 “내 ‘애완견’ 남예겐 ‘혐오견’” 『대전일보』 (2004년 9월 7일)

신선미 “애견운동장 설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인일보』 (2013년 3월 25일)

안경환 “유기견을 장애인 도우미견으로” 『경기신문』 (2013년 3월 14일)

오부목 “울산 남구 애견운동공원, 벤치마킹 잇따라” 『환경일보』 (2013년 5월 13일)

장세훈 “서초구 공공시설 애견 출입금지” 『서울신문』 (2004년 08월 17일)

전수민 “불황에 애견팔자도 양극화” 『국민일보』 (2013년 8월 27일)

전희진 “[펫]개같이 번다고? 개로 돈번다.” 『이코노믹리뷰』 (2012년 7월 6일)

정아람 “당신은 ‘pet’과 사랑에 빠질 준비가 됐나요?” 『세계일보』 (2013년 4월 25일)

황철용 “[반려동물 건강이야기]반려동물 놀이터...꿈에 불과한걸까?” 『경향신문』 (2013년 2월 20일)

홍지민 “[주말 인사이드]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옆 반려견 놀이터 가보니” 『서울신문』 (2013년 10월 19일)

[웹사이트]

“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 cafe.naver.com/dogpalza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보라매공원 웹사이트” parks.seoul.go.kr/template/default.jsp?park_id=boramae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www.kosis.kr

“Award-Winning Town Of Harmony Welcomes Its first Family”

www.ewire.com/news-releases/award-winning-town-of-harmony-welcomes-its-first-family/

“Central Park Conservancy”,

www.centralparknyc.org/visit/general-info/rules-regulations/

“블로그 아름다운 사람 성형외과” [강아지 산책 시키기] 귀여운 시츄 멍개와 즐거운 산책 <http://blog.daum.net/rmflsskfo722/485>

“블로그 랑이네 식탁” [강아지 수제 간식] 강아지 산책 매너 <http://blog.naver.com/soondi1003/110179591599>

■ Abstract

A Study on Conflict Mitigation Method for User Activity with Companion Dogs in Urban Parks

-Based on Status Analysis in Boramae Park-

Hye-jin Cho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 Jong-sang Sung

As interest in leisure activities with companion dogs increases with the increase of companion dogs in city, user activities with companion dogs are mainly shown in urban parks. However, there are conflicts among users because of the absence of infra facilities to coexist with companion dogs and difference in perception.

In this study, we identified the current status of user activities with companion dogs in parks and analyzed the perception of park users on the conflicts caused by user activities with companion dog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rogram, physical and institutional methods to mitigate conflicts between users with companion dogs and general users in parks in the future.

To propose a conflict mitigation method on user activities with companion dogs in urban parks, we used media analysis, site survey and Q methodology.

Through media analysis, general perceptions on companion dogs were collected. Those who have companion dogs, companion dogs are partners and family members, and can be a new opportunity of communication. Although

companion dogs are currently accepted as members of a city, there are still controversies on immature culture related with companion dogs.

We identified characteristics of the space where user activities with companion dogs are mainly made through site survey on Boramae Park. User activities with companion dogs are mainly made around the movement line and they showed inclination to prefer wide grass field. As it is not much different from other users, it seems conflicts between users with companion dogs and general users to be possibly high.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Q statements were made and Q methodology was used on users with companion dogs, general users and administrators in Boramae Park, and 5 types of perceptions were induced.

Although major causes of the conflicts were analyzed as perception of citizens on users with companion dogs, more fundamental cause may be absence of institutional device to support user activities with companion dogs. Regarding problem solution direction, agreement is varied according to the perception on user activities with companion dogs. Favorable group agreed on voluntary participation while unfavorable group agreed on enforcement of regulatory actions. Although the creation of space for user activities with companion dogs was favorably accepted, opinions on the location of the space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purpose of space composition.

Based on the aforementioned analysis results, we proposed program, physical and institutional methods to mitigate conflicts caused by activities with companion dogs.

As a program method, we proposed a program to share emotionally and socially favorable effects of companion dogs by operating a program enabling senior citizens living alone, the handicapped and children to meet companion

dogs to change the perception and consciousness on the user activities with companion dogs. As a physical method, we propose to have a space and facilities dedicated to companion dogs, as users show favorable attitude to the separation of facilities and spaces. As an institutional method, we propose to include companion dog dedicated facilities in park facilities and to make training mandatory for the right understanding and the enforcement of sense of responsibility after introduction of companion dog registration system.

We need to perform such methods in stages. In the first stage, we need to promote voluntary participation of user activities with companion dogs and to secure institutional grounds. In the second stage, we need to activate companion dog related programs and introduce companion dog dedicated facilities in the park. Finally, we need to activate local communities and change perceptions on user activities with companion dogs. Furthermore, user activities with companion dogs in the city can be established as a positive culture in the city, and they may be able to make positive effects on the management of companion dogs in the city through utilization of deserted dogs and enhancement of consciousness of companion dog owners.

■ Keywords : Companion Dog, Urban Park, Dog Run, HAB(Human Animal Bond), Q Methodology

■ Student ID Number : 2012-22080